

지면안내

02

코로나19 대처, 학생들 대체로 불만족

보도기획

06~07

제14회 사진공모전

사진공모전

11

새내기 1학기 탐구생활

새내기기획

12

라떼는 말이야

기획

본교의 코로나19 타임라인 훑어보기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한국은 변화의 바람을 맞게 됐다. 본교도 2월 12일부로 기존의 학사일정을 허물고,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학교와 학생 간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고, 학내 커뮤니티는 본교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게시글로 끊임없이 불타올랐다. 코로나19로 인해 한 학기 동안 발생한 학내 주요 사건들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02.25

교내 출입 통제, 상상파크·학술정보관 임시폐쇄, 자가 진단실 설치



02.28~29

개강일을 3월 16일로 추가 연기, 종강일을 6월 26일까지로 1주 연기, 재택수업 기간을 3월 30일까지로 공고, 중간·기말고사 일정 1주 연기

02.12

정시 오티 온라인 대체, 전기 학위수여식·새내기 배움터·입학식 등 주요 행사 취소, 개강일을 3월 9일로 1주 연기

03.16

온라인 개강 실시



03.19

대학본부관계자 16명과 학생대표 18명의 '2020학년도 제1차 학생대표 정기 간담회' 개최

간담회에선 ▲등록금 환불 여부 ▲온라인강의 지원 ▲실습·실기강의 집중이수제 실시 등을 논의

04.17

'2020학년도 제2차 학생대표 정기 간담회' 개최

간담회에선 ▲1학기 전면 온라인강의 ▲1학기 절대평가 실시 ▲4월 27일부터 일부 실습·실기 과목에 대한 대면강의 실시 ▲코로나19로 인한 일반 휴학 허용 실시 등을 논의



03.20

재택수업 기간을 4월 10일까지로 2주 추가 연장

04.02

재택수업 기간을 5월 1일까지로 4주 추가 연장

04.21

1학기 전면 온라인 비대면강의 도입

05.25

4월 27일부터 일부 실습·실기 과목에 대한 대면 강의를 실시했으나, 이태원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일시 취소 후 재개



06.02

기말고사 공지에 대한 학생의 반발로, 총학생회가 학생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취합 후 '제한적 대면수업 특별위원회'에 제출

위원회에선 교수 재량으로 자율적 대면 기말고사 진행 및 대면 기말고사를 진행하는 과목의 방역과 강의실 배분 지원을 결정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및 과학생회장이 각 과목 교수에게 대면시험 시행 의견 조사



06.05

'코로나19 극복 상상부기 온라인 페스티벌' 3부에서, 이창원 총장이 코로나19로 수업피해가 발생한 전교생에게 '한성희망장학금' 약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임을 발표

코로나19 대처, 학생들 대체로 불만족

문제개선 · 행사운영에 불만족, 학사운영도 개선 필요해

2020학년도 1학기 대학본부는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개강연기, 온라인강의 전면 시행 등 이례적인 학사운영을 진행했다. 교내 시설 폐쇄, 출입 통제 등 방역 조치뿐만 아니라 간담회, 온라인 행사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온라인강의 질 개선, 신속한 학사운영 등 학생의 요구가 있었다.

본지는 본부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3일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본부 코로나19 대처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80.5%가 불만족·매우 불만족에 답했으며, 만족·매우 만족에는 응답자의 19.5%가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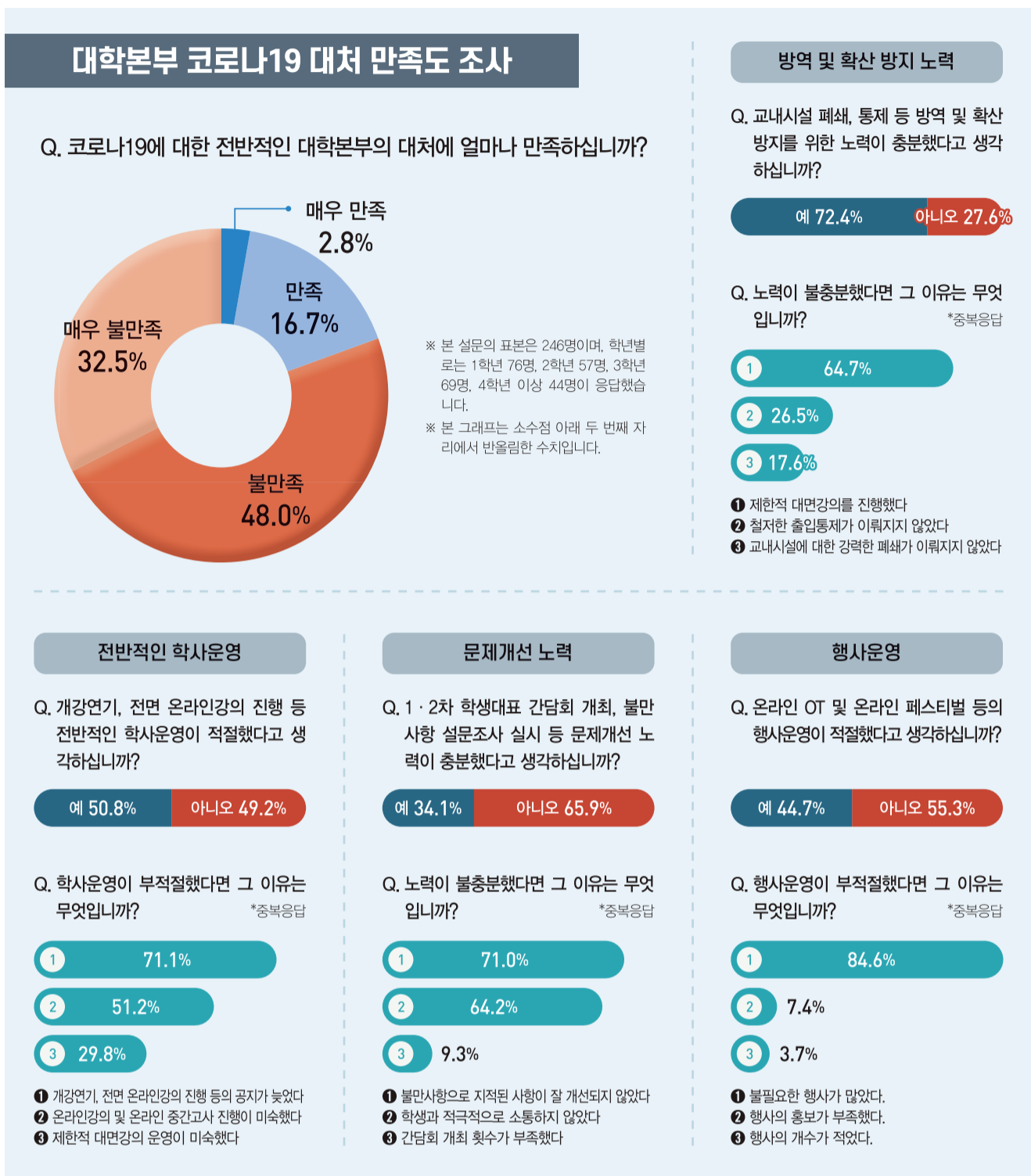
대학본부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서는 ▲방역 및 확산 방지 노력 ▲전반적인 학사운영 ▲문제개선 노력 ▲행사운영 등 영역을 나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방역 및 확산 방지 노력 영역에는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으며, 전반적인 학사운영은 긍정적인 응답률과 부정적인 응답률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 문제개선 노력, 행사운영 영역은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방역은 합격, 신속하고 명확한 공지 필요해
우선 '방역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가'에는 응답자의 72.4%가 '예'라고 응답해, '아니오'라고 응답한 응답자(27.6%)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개강연기, 전면 온라인강의 진행 등 전반적인 학사운영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는 50.8%의 응답자가 '예'라고 응답해 49.2%의 '아니오' 응답자보다 미세하게 높았다.

학사운영이 부적절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개강연기, 전면 온라인강의 진행 등의 공지가 늦었다(71.1%) ▲온라인강의 및 온라인 중간고사 진행이 미숙했다(51.2%)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개강연기, 전면 온라인강의 진행 등의 공지가 늦었다'에 응답한 한 학생은 "대면 기말고사 공지의 경우, 기말고사가 2주 남는 시점에 올라왔다"며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답했다. 공지가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 조윤철(학사운영팀) 팀장은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공지를 내고자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온라인강의 진행이 미숙했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 응답자는 "온라인강의가 제시 간에 올라오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또한 시청각 자료 없이 교수가 교재만 읽는 강의가 있다"며 "여전히 강의의 질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조 팀장은 "추후 온라인강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방중에도 2-3차례 교수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수가 교재 외에 시청각 자료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개선과 행사운영은 보완해야

'1·2차 학생대표 간담회 개최, 불만사항 설문조사 실시 등 문제개선 노력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니오(65.9%)'가 '예(34.1%)'보다 높게 나타났다. 문제개선 노력이 불충분한 이유로 '불만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이 잘 개선되지 않았다(71.0%)', '학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았다(64.2%)'는 의견이 많았다. 한 응답자는 "학교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은 결과만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소통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 최천근 학생처장은 "Hello, mr. president, 총장과의 식사, 공식 홈페이지 내 Q&A 등 학생이 학교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다"며 "재학생의 의견을 전부 수용할 수는 없지만 매달 간담회 등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온라인 OT 및 온라인 페스티벌 등 행사운영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4.7%가 '예', 응답자의 55.3%가 '아니오'라고 응답했다. 행사운영이 부적절했던 이유로 '불필요한 행사가 많았다(84.6%)'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 의견에 대해 박태민(학생장학팀) 팀원은 "온라인강의로 인해 비교과 포인트를 모으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온라인 공모전, 행사 등을 개최해 학생들이 보다 비교과 포인트를 쉽게 모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학생들은 코로나19에 대한 본교의 대응에 대체로 낮은 점수를 줬다. 본부는 학생들의 반응에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학본부가 앞으로 학생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희연 기자
heeyen96@naver.com

장학금 지급에도 등록금 환불 요구 이어져

본교 "정부와 교육부 결정 준수", 학생들 "장학금과 환불은 별개, 실습비 등 고려해야"

지난 6월 5일 이창원 총장은 상상부기 온라인 페스티벌에서 모든 재학생에게 약 2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급되는 돈은 한성희망장학금 모금 운동과 본교의 예산 절감을 통해서 마련된다.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 환불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제시됐다. 본부는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해, 학교 운영이 등록금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정부와 교육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천근 학생처장은 "2020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자금 예산명세서를 보면 본교의 한 해 예산은 약 1,023억 원이다. 그중 등록금은 약 490억 원으로 전체 48%에 해당한다"며 "학교 운영이 모두 등록금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등록금 환불 대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학본부 코로나19 대처 만족도 조사'에서 '재난장학금 조건부 지급 방안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1.5%가 '아니오'라고 응답했다. '아니오'라고 응답한 학생은 ▲등록금 환불과는 별개의

문제다(81.3%) ▲실습비 관련 대책이 부족했다(43.2%) ▲재난장학금 관련 공지가 부족했다(35.2%) 등을 이유로 꼽았다.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자치기구는 교육부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1일, 디자인대학 및 회화과 학생회는 공동으로 예술대학생 네트워크(이하 예대넷)에서 진행한 릴레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시국선언에서 디자인대학은 예산안과 사용내역을 비교한 자료 공개, 등록금차등반환 등을, 회화과는 실습 강의의 손실로 인한 학습권 침해 대책, 실기실 사용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김석원(패션 4) 디자인대학 학생회장은 "지난 3달 동안 본부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전국의 예술대학생들이 모인 예대넷의 활동에 동참해 등록금환불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학생회는 등록금환반운동본부에 참여 중이다. 박민수(컴공 4) 총학생회장은 "학교에 요구하기보다 교육부에 등록금 환불 관련 법안개정 및 환불을 요구하는



▲디자인대학 학생회(좌)와 회화과 학생회(우)가 시국선언문 자료를 붙이고 있다. 이번 시국선언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회 SNS 등을 통한 온라인 게재와 창의관과 지선관에 시국선언문 자료를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것이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학교의 기존 예산안과 코로나19로 바뀐 예산안을 공개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면 온라인 강의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학생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아직 등록금 환불 등 학교로부터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상황이다. 학교에게서 원하는 답을 받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성훈 기자
csh8947@hanmail.net

‘상상더+학기’ 신설, 올 하계 방중부터 도입

방중에 2학기 학점 일부 이수 가능, 실습 위주의 교과목 개설돼

본교가 오는 여름방학부터 상상더+학기를 처음 시행한다. 상상더+학기는 2학기 교과과정 중 일부를 여름방학에 나누어 수강하는 학사 제도다.

상상더+학기는 재학생 중 2학기 등록 예정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2학기 이수 학점 중 최대 9 학점까지 방중에 이수할 수 있으며, 수강 및 이수 학점과 취득 성적은 모두 2학기 성적으로 인정된다. 계절학과와 동일한 방침으로 운영되지만, 수강 등록금을 추가 지불하는 계절학과와 달리 상상더+학기는 등록금이 2학기에 포함된다.

상상더+학기 수강신청은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가능하다. 이론 및 실습 강의는 3주간, 실습 및 체험 강의는 7주간 진행된다. 이론 및 실습 강의는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실습 및 체험 강의는 추후

일정이 공개될 예정이다.

과동화(학사기획팀) 팀원은 “상상더+학기는 정규학과와 차별화해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새로 도입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실습 위주의 교과목과 다양한 프로그램

현재 개설된 상상더+학기 교과목은 ▲패션디자인프로세스 ▲사회봉사 I·II (A/B/C) ▲패션·예술에서의 AI활용 ▲도서관프로그램 기획 ▲캡스톤디자인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현 ▲상상설계 진로교양 I·II (교양/전공)이다. 사회봉사를 포함한 일부 실습 교과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교수와 학생 간의 협의 후 실습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상상더+학기 교과목 유형은 트랙

(전공), 교양으로 구성된다. 트랙(전공) 유형에는 실습·실기 중심의 기초 교과목과 다분반 교과목이 개설된다. 기초 교과목이 개설되는 이유는 트랙 기초 역량이 떨어지는 학생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수강신청 시 일부 교과목에 학생이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과 팀원은 “실습·실기 강의가 많은 트랙을 2트랙으로 선택한 학생 일부는 기초 역량이 떨어져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다. 상상더+학기를 활용해 부족한 학습 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양에는 1학년 필수교양 과목인 사회봉사 I·II가 개설된다. 사회봉사 I를 수강해야 사회봉사 II를 들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2학기 개설과목인 사회봉사 II를 원활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과 팀원은 “시간 조율이 쉬운 방중에 학생이

미리 수강할 수 있도록 해, 학기 중 학업 부담을 줄이고자 개설됐다”고 취지를 말했다.

이외 ▲창의융합교육과정 ▲서비스러닝 프로젝트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창업대체학점제 ▲진로탐색학점제 등의 프로그램이 개설된다. 과 팀원은 “정규학기 중 해 보기 힘든 실습 및 프로젝트,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해 학생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답했다.

스스로 교과목을 설계하는 진로탐색학점제

진로탐색학점제는 상상더+학과 더불어 처음 시행되며, 이번 상상더+학기를 기점으로 상상더+학과 정규학기에 개설된다. 재학생은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양한 방법으로 한 학기 동안의 교과목을 스스로 설계·실행하고, 그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진로탐색학점제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개인 또는 팀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2학기 이상 7학기 이하의 기간 동안 재학한 학생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심사는 1차 서류, 2차 면접으로 구성돼 있다. 진로탐색학점제 운영위원회에서 활동 목표의 명확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의지, 성실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선발된 학생은 한 학기 최대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정규 수강과목과 프로그램을 병행할 수 있다. 학점을 얼마나 인정할 지는 활동 소요 시간, 활동 성과물, 지도교수 활동 점검 보고서 등을 평가해 결정될 예정이다.

진로탐색학점제는 주제와 시행 방법에 따라 창의융합개발형, 창의융합창작형, 창의융합연구형, 창의

융합문제해결형, 기타자유형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창의융합형개발에는 프로그램, 제품 등의 개발활동이, 창의융합창작형에는 문화예술 분야의 공모전, 문학상 참가 등의 활동이 해당된다. 창의융합연구형에는 심화과제, 산학프로젝트 등의 연구 수행 및 발표 활동이, 창의융합문제해결형에는 사회문제 분석 및 해결책 도출 등의 활동이 해당된다. 이외 해당하지 않은 활동은 기타자유형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김진미(취업지원팀) 팀원은 “해당 프로그램은 4차 산업시대의 창의·융합적인 진로 탐색과 자기 주도적 진로 개발 역량을 키울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희연 기자
heeyun96@naver.com
이슬비 기자
selbee01@gmail.com

본교 다자녀장학금 삭감, 2학기는 25만 원으로 감축돼...

지난 21일, 본교가 2020학년도 2학기 교내 다자녀장학금 지급액을 25만 원으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교내 다자녀장학금은 2017년 1학기부터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해 왔다. 초기 지급액은 100만 원이었지만, 2019년 1학기에는 70만 원, 2019년 2학기에는 50만 원으로 변동됐다.

다자녀장학금의 수혜를 받던 일부 학생은 불만을 표출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회과학부 학생은 “매년 통보식으로 급격히 장학금 액수를 줄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등록금은 같은데 학생복지가 줄어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급액 감소보다는 지급 대상자를 조정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등록금 동결로 인한 수입 감소 ▲교내 다자녀장학금 신청자 수 증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예산 지출 ▲국가 다자녀장학금 지급 기준 완화 등을 이유로 다자녀장학금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황준식(학생장학팀) 팀원은 “삭감 이유는 먼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수입 감소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등록금이 수년간 동결됐지만 물가는 계속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는 다자녀장학금 신청자 수의 증가를 근거로 들었다. 황 팀원은 “2017년에는 신청자 수가 315명이었지만 2018년은 571명, 2019년은 717명으로 증가했다”며 “2020년 1학기 현재만 해도 300여 명이 신청

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자녀장학금 지급액이 조정된 것도 삭감의 원인이다. 황 팀원은 “2020년 2학기는 원래 50만 원으로 지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극복 한성희망장학금’에 쓸 자금이 필요했다. 5월 15일 장학위원회를 거쳐 다자녀장학금을 25만 원으로 삭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다자녀장학금 지급 기준 완화도 이유로 꼽았다. 기존에는 셋째 자녀부터 국가 다자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었지만 2018년 1학기부터 첫째와 둘째 자녀까지도 완화했다. 지급 연령 상한선도 만 24세에서 만 29세로 확대됐다. 그는 “교내 다자녀 장학금은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급

한다. 학생들이 이미 국가 다자녀장학금으로 수업료를 받고 있어, 교내 다자녀장학금을 지급하면 수업료를 더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다자녀장학금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25만 원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황 팀원은 “코로나19 중시 이후 지급액이 50만 원으로 증가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급액 추가 삭감이나 다자녀장학금 폐지는 없을 것”이라며 “종합적인 이유로 다자녀장학금 지급액 조정이 불가피했다. 장학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된 사항만큼 다자녀 가구 학생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수 기자
jseo53493@gmail.com

‘총장과의 점심식사’ 열려

지난 9일,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에서 ‘총장과의 점심식사’ 행사가 진행됐다. 본 행사는 총장과 본교 재학생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학교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창원 총장과 학생처장 및 각 부서의 팀장 등 대학본부 관계자 8명과 사전에 선발된 7명의 재학생이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는 ▲자기소개 ▲식사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수렴의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기말고사 운영방안, 장학금 지급 등 교내에서 화제가 되는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 이날 이 총장은 “소통은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이라며 “그것은 결국 우리의 역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송지담(상상력 1) 학생은 “학교의 비전과 노력을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담당한 박태민(학생장학팀) 팀원은 “재학생의 학교생활 애로·건의사항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총장에게 전달해, 원활한 소통을 하고자 기획됐다”며 “행사를 통해 들어온 건의사항은 검토 후 즉각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6일에도 동일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매 학기 2회씩 진행되며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비교과 포인트 10pt가 지급된다.

이슬비 기자
selbee01@gmail.com

상상부기 온라인 페스티벌 성황리에 마무리

지난 6월 5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코로나19 극복 상상부기 온라인 페스티벌(이하 페스티벌)’이 진행됐다. 본교는 한성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페스티벌을 실시간으로 방송했다. 페스티벌은 ▲1부 상상부기 온라인 가요제 ▲2부 금강연화 헤어쇼 ▲3부 한성토크 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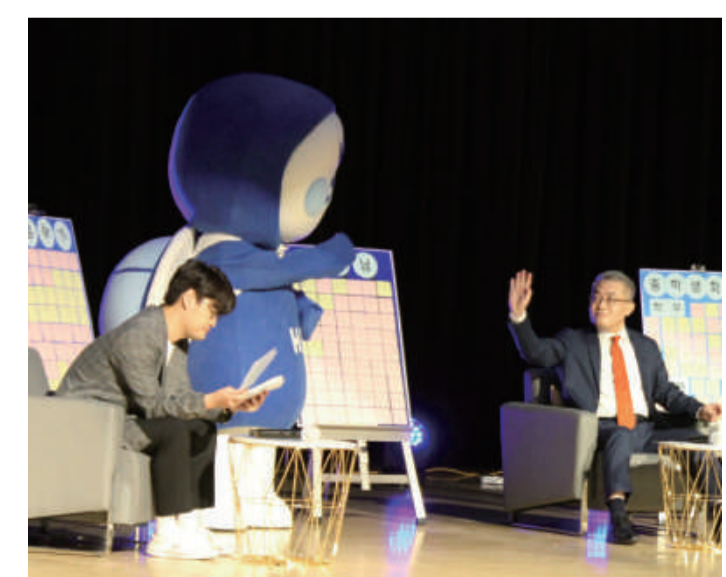
1부 상상부기 온라인 가요제에서는 사전에 1·2차 예선을 통과한 6개 팀과 특별상을 탄 1개 팀이 공연했다. 구글 설문지를 통해 진행된 실시간 투표결과 가수 이예준의 ‘미친 소리’를 노래한 이정석(산공 3)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다. 그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투표해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2부 금강연화 헤어쇼에서는 개인방송 스타이자 한디원 강사인 금강연화가 살가운 대화와 함께

외국인 학우의 머리를 손본 영상이 송출됐다. 박태민(학생장학팀) 팀원은 “2부 금강연화 헤어쇼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됐다. 외국인 유학생은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장기간 제약돼 어려움이 많았다. 그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3부 한성 토크 콘서트는 이창원 총장, 박민수(컴공 4) 총학생회장, 엄정연(한디원 4) 한디원 총학생회장, 상상부기가 참석했다. 콘서트에서 그들은 미리 준비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교는 질문을 학생에게 취합한 뒤 선별했다. 박 팀원은 “3부 한성 토크 콘서트는 학교와 학생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기획했다”고 전했다.

페스티벌의 취지는 학생과 학교의



▲한성 토크 콘서트에서 이창원 총장이 상상부기와 인사하고 있는 모습

소통 및 한성희망장학금 모금 홍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페스티벌이 학생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대건 기자
daegungod@naver.com


본교 한성희망장학금 모금 진행해

본교가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극복 한성희망장학금(이하 한성희망장학금)’ 모금을 진행한다. 한성희망장학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된 기부금이다.

한성희망장학금의 지급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모금이 끝난 후 본교 「장학금규정」에 따라 장학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창원 총장은 “한성희망장학금은 늦어도 8월 중순에 지급될 것”이라며 “학생이 캠퍼스에서 꿈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학내 구성원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기부금 납입방법

- 모금기간**
2020년 5월 18일~
2020년 6월 30일
- 약정방법**
온라인 약정 또는 이메일
(give1004@hansung.ac.kr)
- 후원계좌**
기업은행 114-1004-1004
(예금주: 한성대학교)
- 기부문의**
02)760-4255 (대외협력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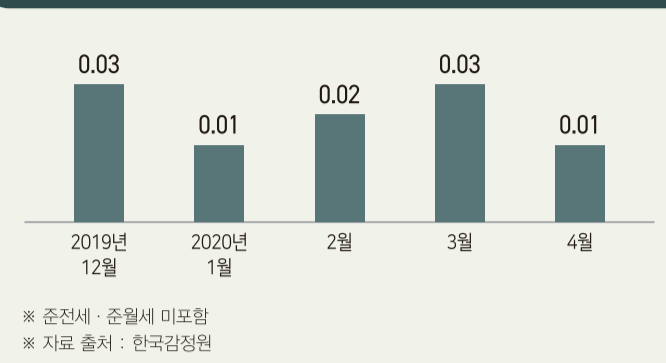
대책 없는 청년의 홀로서기

청년이 사회초년생으로서 자립하기 위해선 자신만의 집이 필요하다. 하지만 청년의 홀로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39년이 지났음에도, 청년은 아직 불안정한 주거 형태와 높아지는 월세에 고통받고 있다.

날이 갈수록 청년의 주거실태는 열악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20~34세)가구의 50.2%가 월세거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청년가구에서, 자가에서 거주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자가점유율은 17.2%로, 2017년 19.2%였던 것에 비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가구의 자가점유율이 58.0%인 것에 비하면 청년가구는 불안정한 주거 형태를 띠고 있다.

수도권 주택의 꾸준한 월세상승은 청년의 홀로서기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의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특별시 연립, 다세대주택의 월세가 가장 높은 최소 0.01%에서 3월에 최대 0.03%까지 상승했다. 재개발 및 정비 사업으로 노후주택이 사라지는 등 공급량이 줄고 있는 것이 임대료

서울 소형연립·다세대주택 월세 상승률 (단위: %)



상승의 원인으로 꼽힌다. 김준형(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노후주택이 중·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 기회를 제공해 왔지만 재개발로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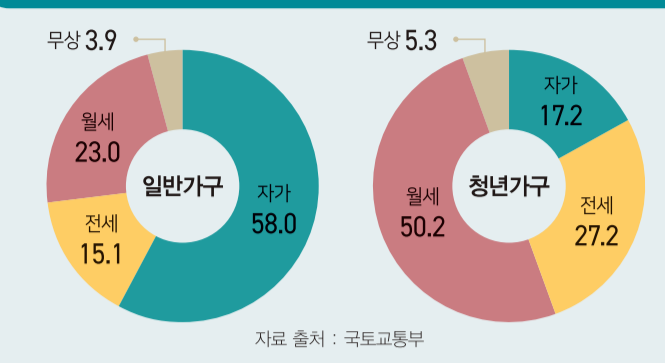
높은 월세를 청년의 낮은 임금으로 충당하기는 버거운 상태다. 한국감정원의 '월세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연립, 다세대주택의 평균월세가격은 올해 5월 기준 55만 4천 원이다.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 일자리에 임금이 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79.4%, 150만 원 이하인 청년은 45.3%에 달했다. 청년이 150만 원의 월급을 받을 때,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약 137만 원 정도다. 지난 2016년 서울시 청년의 월 평균

생활비 지출액은 약 58만 원이었다. 연립, 다세대주택의 평균 월세가 인 약 55만 원을 이에 더하면 월급 137만 원 중에 114만 원이 고정지출이 되는 것이다. 사실상 청년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하지 못하게 된다. 15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청년 근로자라면 저축을 꿈꾸기는 커녕 생활비와 월세조차 감당하기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청년의 생활을 돕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거비 지원 제도 ▲청년을 위한 주택사업 ▲청년대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9월부터 주거비 지원 제도를 통해 기본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중 5,000명에게 10개월에 걸쳐 총 2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2019년 일반가구와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성 비교 (단위: %)



'청년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의 청년을 위한 주택사업을 통해 청년의 주거기회를 늘리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역세권이라는 좋은 입지와 더불어 주변 시세의 60~80% 가격으로 공급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서울시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의 청년을 위해 '청년 임대보증금' 제도도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7,000만 원 혹은 임대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을 연 2.0%의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청년의 실질적인 주거환경이 개선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홍정훈(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행정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청년가구를 보편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며 "현재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이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인 14㎡(4.23평)를 겨우 넘는 수준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한 주거공간이 되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출 방식의 제도는 청년의 부담을 줄여주는 하나, 복지제도로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주거비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 방식의 수혜자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에 대해 "현재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을 무작정 높이기에도 곤란한 상황이다. 만약 최저주거기준

이 높아질 경우, 청년주택과 같은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어들어 수혜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변화만을 기다리며 청년주거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는 주거권에 대한 청년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김 교수는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지만, 청년 또한 자신이 처한 주거문제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 스스로 주거권을 보장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선우 기자
rtdjrfl@naver.com



대학가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불타오른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채 대학가의 1학기가 마무리되고 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 때문에 대학가는 불만의 목소리로 가득하다.

지난달 14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반환 소송과 법안개정 서명운동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달 18일부터는 소송인단 모집과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소송의 법리 내용은 ▲등록금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등 3가지를 골자로 한다.

우선 '등록금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각 대학이 지출 예산으로 고려한 항목 중 온라인강의로 학생이 쓸 수 없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온라인강의의 질이 대면강의에 비해 학생이 기대한 교육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지켜지지 않아 중대한 침해로 이어져 이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해지(전대넷) 집행위원장은 "등록금 반환 소송은 등록금 반환에 대한 교육부와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침해된 수업권에 대해 사회적으로 여론을 환기시켜, 학생의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한다"고 전했다.

등록금 반환 소송과 함께 진행된 등록금 법안개정 서명운동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과 '고등교육법'에 '학생 참여 및 논의 보장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집행위원장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에 의거,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학생에게 등록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5조에 의거,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조항에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감독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대학과 교육부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학생이 등록금 반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6월 9일 자정 기준, 등록금 법안개정 서명운동에 참여한 학생은 총 1,548명에 달한다. 이 집행위원장은 "법안개정 서명운동은 국회에서의 법안개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학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금 규칙 제3조와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환(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대학은 학생에게 등록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특히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의 경우에는 원격강의만으로 교과목 이수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등록금 환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과 정부의 갈등은 절정을 향해 달리고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속, 불통이 아닌 소통의 모습으로 변화해야 할 때다.

안현경 기자
dksgusunud24@naver.com

기자가 읽어주는 경제 TALK

시장 온도 알아내는 소비자심리지수

지난 5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반등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77.6으로 전월대비 6.8p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의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전망을 바탕으로 현재생활형편, 현재경기판단, 현재가계지출, 물가수준전망 등 17개 항목을 조사해 매달 소비자동향지수를 발표한다. 여기서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의 개별지수를 표준화해 합성한 수치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넘으면 소비자가 현재 경기를 과거(2003년 1월 ~ 2019년

12월) 평균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며, 100을 넘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즉 우리는 소비자심리지수를 통해 경기변화, 경제지표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경제 주체의 심리, 양적 통계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 미래 지출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미래 소비가 증가할지 혹은 감소할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올해 소비자심리지수는 ▲1월 104.2 ▲2월 96.9 ▲3월 78.4 ▲4월 70.8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이윤재(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자과 2월 중순경부터 우리나라에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한 여파가 3월과 4월 소비자심리지수에 반영돼 수치가 급격히 하락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런데 소비자심리지수가 5월 들어 77.6으로 반등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이 소비자심리지수의 반등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안정세를 보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실물 경제거래의 회복이 소비자의 지출을 늘린 것"이라며 "정부가 4월 중순 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해 소비자 미래 소비성향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긍정적으로 전망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대비 상승했지만 여전히 100보다 작은 70 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5월의 소비자심리지수 변화만으로 전반적인 경기상황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본격적인 소비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은 경기가 낮은 소비자심리지수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가 풀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 교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이다. 소비자심리지수 반등 효과는 반짝 소비증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미래 소득의 흐름이 근원적으로 소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고용증대가 이뤄져야 경기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지난 5월 14일, 전대넷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 소송 및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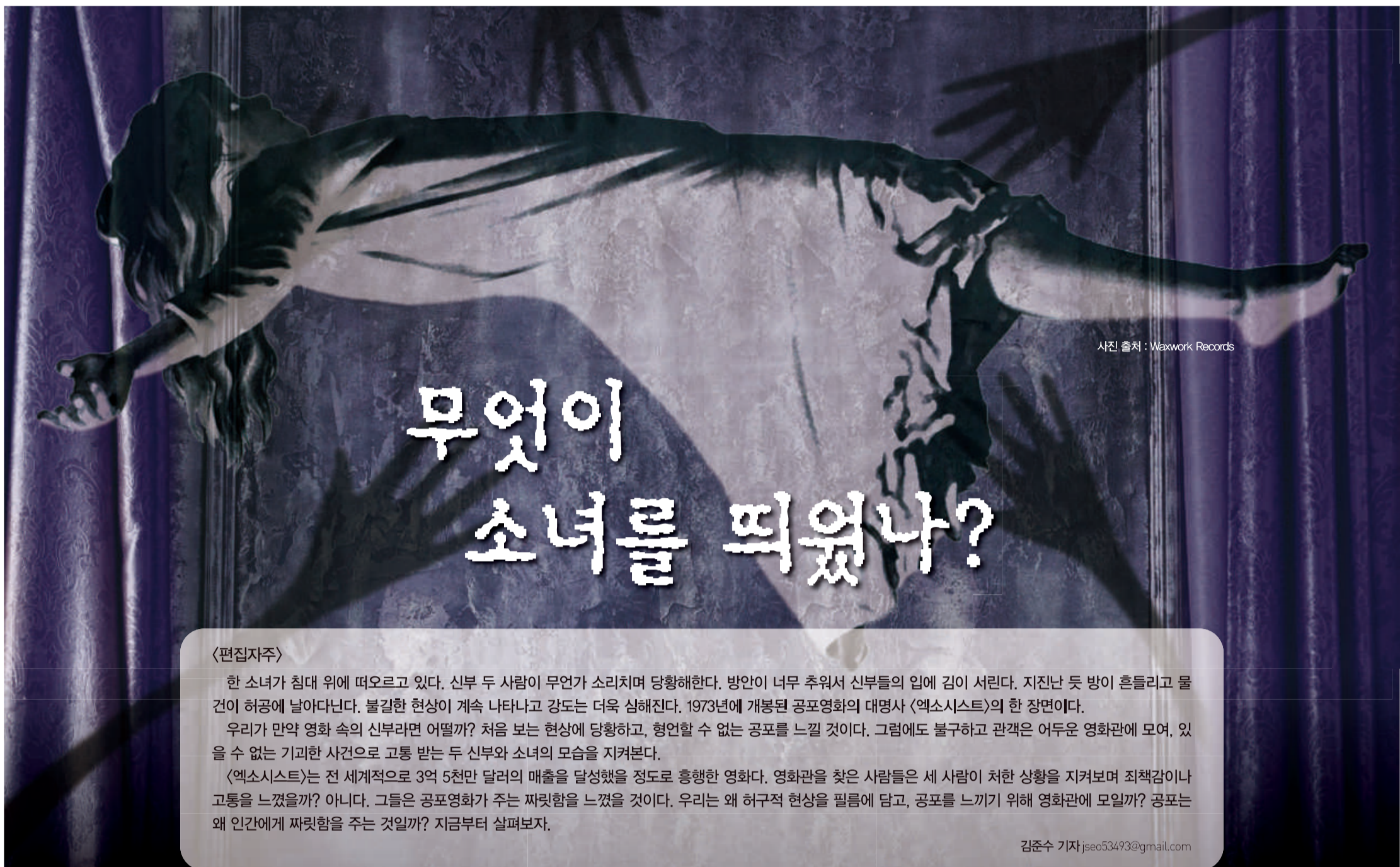


사진 출처 : Waxwork Records

무엇이 소녀를 찍었나?

〈편집자주〉

한 소녀가 침대 위에 떠오르고 있다. 신부 두 사람이 무언가 소리치며 당황해한다. 방안이 너무 추워서 신부들의 입에 김이 서린다. 지진난 듯 방이 흔들리고 물건이 허공에 날아다닌다. 불길한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강도는 더욱 심해진다. 1973년에 개봉된 공포영화의 대명사 〈엑소시스트〉의 한 장면이다. 우리가 만약 영화 속의 신부라면 어떨까? 처음 보는 현상에 당황하고, 형언할 수 없는 공포를 느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은 어두운 영화관에 모여, 있을 수 없는 기괴한 사건으로 고통 받는 두 신부와 소녀의 모습을 지켜본다. 〈엑소시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3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을 정도로 흥행한 영화다. 영화관을 찾은 사람들은 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지켜보며 죄책감이냐 고통을 느꼈을까? 아니다. 그들은 공포영화가 주는 짜릿함을 느꼈을 것이다. 우리는 왜 허구적 현상을 필름에 담고, 공포를 느끼기 위해 영화관에 모일까? 공포는 왜 인간에게 짜릿함을 주는 것일까? 지금부터 살펴보자.

김준수 기자 | seo53493@gmail.com

공포가 주는 쾌감과 안도감

영화 〈파라노말 액티비티〉는 관객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편집해서 광고영상을 제작했다. 광고에 나오는 관객은 영화에 나오는 무서운 장면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비명을 지른다. 우리는 공포를 느끼면 긴장감에 자극을 받는다. 얼핏 생각해보면 긴장감에서 오는 자극이 불쾌할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은 불쾌감이 아니라 쾌감을 얻는다.

단적인 예가 ‘흔들다리 효과’다. ‘귀인의 오류’라고 불리는 흔들다리 효과는 1974년 컬럼비아 대학의 아서 아론과 도널드 더튼 박사가 발견했다. 두 사람은 실험을 통해 안정적으로 만든 다리 위보다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이성을 만났을 때 호감도가 더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안정감보다 긴장감이 호감을 높이는 데 더 좋은 효과를 보였다. 임명호(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사람의 교감신경은 사랑에 빠지는 상황뿐 아니라 두려운 상황에서도 흥분한다”며 “우리는 교감신경이 흥분된 상황을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공포가 주는 긴장감 외에도 우리는 공포영화를 통해 공포를 극복했다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영화 〈컨저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흥행한 공포영화다. 영화 주인공은 한 여성을 잠식한 악령을 잠재우는 데 어렵게 성공한다. 악령에 지배당한 채로 하루 밤 동안 고군분투한 여성은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고통을 극복했음에 감사한다. 영화를 보는 관객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신다.

공포영화 주인공은 우리를 대신해서 공포에 맞선다. 영화를 보는 행위 자체가 공포를 극복하는 ‘대리

경험’인 것이다. 임명호 교수는 “심리적 측면에서 사람은 귀신을 두려워하면서도 관심을 갖는다. 무의식적으로 ‘반동형성’ 기제를 통해 두려움과 불안은 극복하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공포에 맞서는 주인공이 아니라 피해자에 이입하는 경우도 있다. 누구나 공포에 직면하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포에서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길 바랄 수도 있다.

영화 〈검은 사제들〉에서는 한 고등학생에게 악마가 부마한다. 악마라는 강력하고 사악한 존재 앞에서 고등학생은 연약하다. 악마는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조종한다. 관객은 고등학생의 모습을 보며 무력감을 느끼고 동시에 주인공인 사제들이 학생을 반드시 구원해 주길 바란다.

「장재현의 오컬트 장르 영화 연구」에서 이칭(순천향대학교 향설나눔대학) 교수는 “공포영화를 보면서 관객은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자신을 누군가 나타나 지켜주길 바란다. 이런 욕구를 구마하는 모습에서 해소한다”고 풀이했다.

공포영화는 관객에게 긴장감을 선사한다. 관객은 공포를 돌파하는 쾌감과 공포가 지나갔다는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 영화관을 찾는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관객에게 더 큰 쾌감과 안도감을 주기 위해 긴장감을 극대화시킨다. 어떤 도구가 영화 속 공포를 더 크게 만들어줄까?

더 무섭고 더 짜릿하게

공포영화에 나타나는 소재는 현실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이다. 웬지 있을 것 같지만 실제하는지 확실

할 수 없어야 한다. 완전히 판 세상 이야기라면,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 혹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공포를 더욱 현실감 있게 만든다.

공포영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귀신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흥행한 국산 공포영화로 손꼽히는 〈장화홍련〉부터, 〈여고괴담〉, 〈링〉, 〈착신아리〉 등 많은 영화에 귀신이 나왔다. 영화를 보면 누군가에 대한 원한이 모여 귀신이 되거나, 종교나 주술의 영향으로 귀신이 나타난다. 원한이나 종교, 주술 등은 우리 옆에 실재하는 것이지만, 귀신이 정말로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다.

임남연(경성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귀신은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존재이므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존재 여부를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다. 과학기술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귀신이 실존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놓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귀신이 실존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공포감을 더 강화시킨다”고 설명했다.

배경을 일상으로 하는 것도 현실감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다. 영화 〈주은〉을 보면 귀신이 이불 속에서 나온다. 우리가 매일 덮고 자는 이불 밑에 귀신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임남연 교수는 “공포영화의 배경은 보통 우리의 일상생활과 유사하다”며 “공포영화 속 귀신을 보면 일상 속 밀착된 공간에도 귀신이 나타날 것 같은 막연한 공포감이나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포스런 존재를 더 사실감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허구의 존재도 아주 사실적으로 만들면 사람은 잠시 동안 그 존재를 사실로 받아들인다. 사실적인 표현에는 분장뿐 아니라 소리와 카메라의 시점 등 다양한 요소가 적용된다.

1968년도 영화인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선 좀비가 등장한다. 한 여성이 좀비를 피해 차에 숨는다. 차까지 쫓아온 좀비는 창문을 손으로 내려치고 차를 흔들며 위협한다. 창문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음이 들린다. 백돌로 창문을 깨고 차 내부로 좀비가 들어온다. 우리는 둔탁한 소음과 좀비가 바로 보이는 시점 때문에 마치 여성과 함께 차 속에 갇혔다는 착각에 빠진다. 관객은 사자 부활은 불가능하며 좀비는 분장한 배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영화를 보면서 그 사실을 망각한다.

최근에는 〈곤지암〉, 〈그레이트 인카운터 2〉 등 사실감에 초점을 맞춰서 제작하는 모큐멘터리 형식의 영화가 나오고 있다. 모큐멘터리는 허구를 마치 사실처럼 만드는 것으로, 주로 1인칭 시점을 활용한다.



사진 출처 : 영화 〈파라노말 액티비티〉

초소형 카메라를 배우의 몸에 붙여서 1인칭 시점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관객은 현장감과 몰입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대중적인 인지도가 낮은 배우를 캐스팅하거나, 음악과 이펙트를 배제하고 숨소리 등의 현장음만 사용하는 것도 현장감을 위한 장치다.

거리감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영화 〈곤지암〉에서 공포체험을 위해 곤지암 정신병원을 찾은 살롯은 중증환자실에서 정체불명의 존재와 마주친다. 처음에는 멀리서 손전등에 비친 모습만 보인다. 저 앞에 정확히 무엇이 있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상상을 통해 공포감이 증폭된다. 무엇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갑자기 그 존재가 광음을 지르며 돌진한다.

사람들은 아직 불명확한 존재를 멀리서 관찰하고 대응하고 싶지만, 공포영화는 그 틈을 주지 않는다. 미확인 존재가 나에게 해가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바로 그 시점에 이미 귀신이 내 옆에 와있다. 관객은 ‘깜놀’할 수밖에 없다.

공포영화는 다양한 장치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선사한다. 불안함과 공포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 있는 한 공포영화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임남연 교수는 “긴장과 스릴은 우리 몸에 적당한 정도의 긍정적 스트레스인 ‘유스트레스(eustress)’를 준다. 공포영화를 보면서 경험하는 긴장감, 스릴이 영화를 보는 사람의 만족감과 안녕을 높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다. 공포영화가 주는 서늘함과 오싹함이 필요한 계절이다. 불을 끄고 스피커 소리를 높이자. 보다 더 불안하고 짜릿한 공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06:19:27:15

사진 출처 : 영화 〈그레이트 인카운터 2〉

한성대신문 제14회



내 손 안에 제주도 유승원(기계 2)

작품설명 |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와 성산일출봉, 그리고 푸른 하늘까지 모든 풍경을 한 손에 담고 싶은 마음을 사진으로 표현해 봤다.

최우수작 수상소감

사진, 감정을 담다

사진에 흥미를 느끼게 된 것은 작년 여름부터였습니다. 친구를 따라 사진동아리에 가입해 재미로 사진을 찍었는데, 다른 사람이 제 사진을 보며 좋아하는 모습에 굉장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돈을 모아 카메라를 구입하고 혼자 열심히 이곳저곳 출사를 다니며 연습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사진 실력을 보며 뿌듯해하던 중, 문득 방학이 끝나기 전에 사진 여행을 떠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겠다고 곧바로 여행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소는 제주도. 부푼 가슴을 끌어안고 2박 3일의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여러 관광지를 거쳐 좋은 사람과 좋은 풍경을 사진 속에 담고, 가장 기대하던 성산일출봉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을 손 안에 담아 가져가고 싶은 마음에 사진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떠난 여행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지만,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 교내 사진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는 것, 그 사실이 무엇보다도 제주도 여행을 가장 의미 있고 인상 깊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제대로 찍기 시작하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아 경력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큰 상을 받게 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모전을 계기로 자만하지 않고 한 걸음 더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생활을 마치고 나서도 사진 찍는 취미를 이어가며, 더 큰 대회에 도전해 성과를 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사진의 매력은 매순간 느껴지는 감정을 잡아, 프레임 속에 담아둘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진을 본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제 감정이 닿을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화려한 사진보다는 감정을 잘 담아내는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도 사진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저 바로 집 앞의 풍경,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 그 무엇을 찍어도 여러분의 감정이 함께 들어있다면 훌륭한 작품이 탄생할 것입니다. 저에게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 한성대신문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작 수상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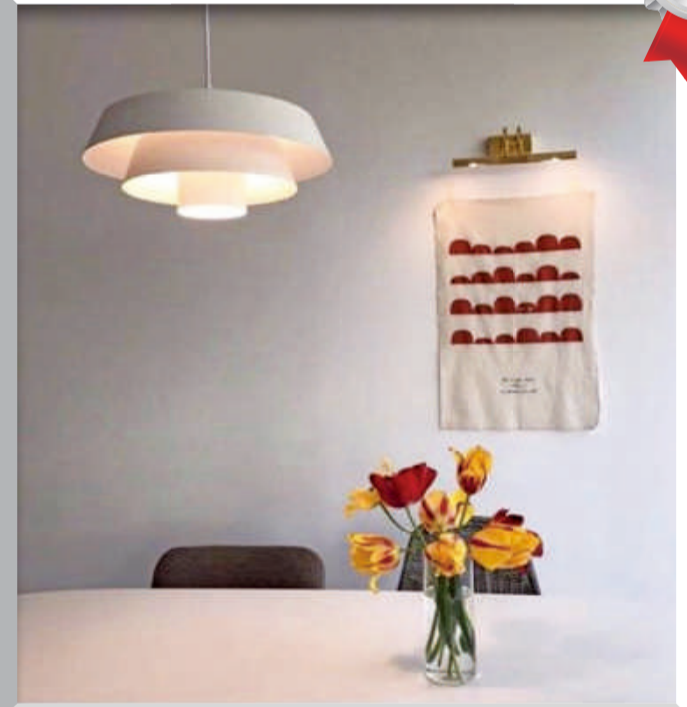
나에게 있어 사진은

최근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사교적인 성격으로 여러 집단에 어울리며 조용한 삶을 살았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했던 기억도 몇 번 없습니다. 자신을 생각하며 과거 고등학교 수학여행에서 봤던 '제주도의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제주도의 바다는 저에게 새롭고 신선한 자극이 됐습니다. 혼란스러움을 정리하고자 혼자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조용함〉이란 작품은 혼자 제주도에 와 생각을 정리하던 도중 찍은 사진입니다. 복잡했던 머릿속과 달리 정갈한 사물의 위치, 깔끔한 화이트톤 벽지, 조용한 분위기가 조화를 이루었고, 한참 바라보다 카메라를 들어 찍은 작품입니다.

평소 패션포토그래피의 꿈을 가지고 있어 인물사진과 패션사진 같은 정적인 사진보다는 동적인 사진을 주로 찍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해 조용함을 얻고 싶었고, 기존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사진을 보고 사진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카메라를 들고 출사를 나가기도 하고 사진의 기술을 익혀 사진학과에 지원할 정도로 사진을 좋아했습니다. 때문에 평소에도 종종 공모전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이번 사진공모전에는 임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참가에 의미를 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작에 임상을 해 얼떨떨하고, 한편으로 실력이 발전했음을 확인한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가작으로 뽑혀 영광이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조용함 이지오(패션 2)

작품설명 | 정물촬영을 통해 극단적인 깔끔함을 표현했다.



사진공모전



심사위원
배병수 사진작가

직 위

- 대한민국의사진대전 초대작가 / 심사위원
- 서울특별시사진대전 초대작가 / 심사위원
-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 촬영지도위원
- 서울시 시민청 문화기획분과 운영자문위원(전)
- 북경 751 중·한 문화교류중심 한류사업단장(전)
- 세계한인재단 문화예술분과위원장(전)

수상경력

-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공식 보도사진가(서울올림픽기록화보 작품수록)
- 그리스 헤라신전 올림픽성화 채화식 기록촬영(1988)
- 중국연변자치주성립 40주년기념행사 공식단독취재 - 조선일보 전면특집화보게재
- 조순 전 서울시장 동북아3개국 순방 기록사진첩 제작(1995)
- 전자정부(2004), 서울시공무원교육원(2011~2014), 서강대CRO 최고위과정(2017)
- 세종연구소(2017~2018), 통일부통일교육원(2019) 사진특강
- 대한민국사진대전, 경기도사진대전, 서울시주최 사진공모전 등 각종 전국사진공모전
-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 역임

심사평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

〈한성대신문사〉가 주최하는 사진공모전이 올해로 벌써 14회나 됐다니 놀랍습니다. 응모작품도 예년보다 늘어 227점이 응모됐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한 명의 사진가로서 반갑고 기쁩니다. 사진작품을 통해서나마 한성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서 무척 기대가 되고 흥미로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 공모전 작품들과는 달리 무척 소박하고 순수하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건, 주제가 특정되지 않은 자유작이라 젊은 학생들답게 참신한 아이디어와 재치가 묻어나는 창의적인 작품들이 많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대부분 사고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평이한 풍경사진이 많다는 점 때문이었지요.

좋은 사진이란 무엇일까요? 사진을 찍으면 남다른 감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 의도한 대로 표현해 낼 수 있는 기술적인 테크닉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노출과 포커스가 잘 맞고, 테크닉이 훌륭하다고 해서 좋은 작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피사체를 통해 자신의 느낌이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해 낸 사진이 '좋은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아낸 창의적인 사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작품을 만들기란 프로작가들한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어린 학생들 작품에서 그런 수준을 요구하는 건 어쩌면 지나친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심사는 소소한 일상의 모습이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작품을 찾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유승원(기계 2) 학생의 〈내 손 안에 제주도〉와 가작으로 선정된 이지오(패션 3) 학생의 〈조용함〉 모두 소박한 시각으로 접근해 순수함이 느껴지는 작품으로, 높은 수준의 작품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응모작들 보다는 자신만의 개성 있는 시각으로 이야기를 담아보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작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평한다면 〈내 손 안에 제주도〉는 노출이나 포커스, 구도 등 테크닉 측면에선 부족함이 없는 솜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내용적인 면에선 성산일출봉의 멋진 풍경을 그대로 담아가고 싶은 마음을

소품이 이용해 재치 있게 표현한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 열은 심도로 인해 전체 배경이 아웃 포커스가 돼 주제가 배경에 묻히지 않고 입체감을 살린 점도 아주 좋았습니다.

〈조용함〉은 제목 그대로 일상의 평온함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특별한 것 없는 생활 속 풍경이지만 마치 정물화를 보듯 안정감 있게 생활소품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색감 또한 따뜻하고 부드러움이 느껴져, 볼수록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감이 가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디지털사진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사진 한 장의 가치와 무게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요. 사진 한 장이 역사를 바꾸고 사회변혁의 기폭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굳이 거창한 의미부여가 아니라도 사진을 찍는 이유는 충분할 것입니다. 항상 아름다움을 찾아 아름다움을 품고 사는 사진가는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진공모전에 출품해 주신 모두에게 사진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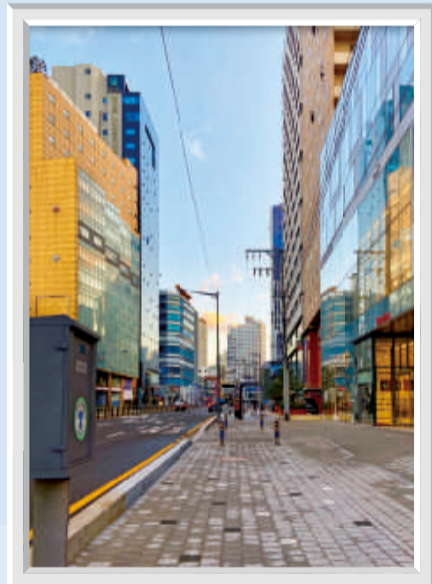
아쉬운 작품들



잊어버린 빛 김지우(기계 3)



정적과 단절사이 박우림(뉴미디어 3)



노란 부산 성지희(인문 1)



베스트 프렌드 우예린(패션 4)



우간다에서 만난 남매 허예정(패션 4)

webtoon!

자신감으로 잡은 기회

웹툰 <선배는 별로예요> 작가 아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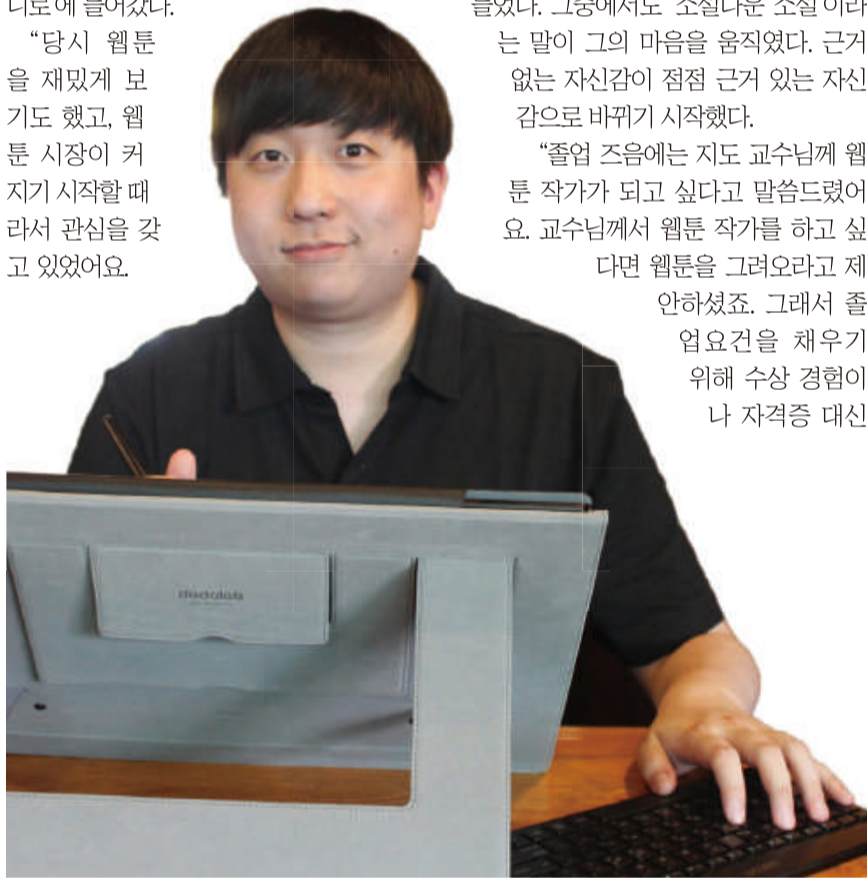
성공한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자신에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도 기회를 잡아 성공한 사람이 되길 원하지만 순탄치 않다. 기회가 다가왔을 때 망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회를 원하지만 실패할까봐 이를 두려워하고 망설인다.

여기 자신감을 가지고 기회를 잡아 성공한 사람이 있다. 우리 학교 한국어문학부를 졸업한 뒤, 웹툰 작가로 데뷔한 <선배는 별로예요>의 작가 '아렘', 강산(29) 씨다. 실패 앞에서 두려움 없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근자감'에서 시작한 만화

인기 작가인 그도, 처음부터 만화 창작에 소양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로지 만화를 그리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본교 만화동아리 '매나니로'에 들어갔다.

"당시 웹툰을 재밌게 보기도 했고, 웹툰 시장이 커지기 시작할 때라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만화를 배워보고 싶어서 만화동아리에 들어갔죠. 만화를 배우는 커리큘럼 같은 게 딱히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떻게 시작할지 막연했거든요."

그는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야 비로소 웹툰 작가라는 구체적인 꿈을 꾸게 됐다. 원동력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다. 그림에 대해 별다른 가르침을 얻지 못했던 그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그림을 배우고 만화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당시 만화동아리에서 1년에 한 번씩 단편집을 만드는 회지작업을 진행했어요. 저도 작업에 꾸준히 동참했죠. 동아리 안에 팀별 프로젝트도 있었는데, 동아리 부원들이 함께 모여서 창작활동과 그림연습을 했어요."

학교 강의에서도 도움을 받았다. '소설 창작'이라는 강의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서사를 짜본 그는 교수와 학우의 칭찬을 들었다. 그중에서도 '소설다운 소설'이라는 말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점점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졸업 즈음에는 지도 교수님께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교수님께서 웹툰 작가를 하고 싶다면 웹툰을 그려오라고 제안하셨죠. 그래서 졸업요건을 채우기 위해 수상 경험이나 자격증 대신

직접 만든 웹툰 한 편을 제출했어요. 제 첫 작품이었어요. 처음으로 풀 컬러 70컷 원고를 작업하다 보니 2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웹툰 작가로서의 시작이었죠."

자신감으로 버틴 고난

보여주거나 증명하지 못한 사람에게 세상은 가혹하다. 그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웹툰 작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만화동아리를 통해 알게 된 지인과 함께 웹툰을 만들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공모전을 앞두고 연락이 끊겼고, 나중에 연락이 닿자 그는 "너를 믿지 못해서 그랬다"는 말을 전했다. 다른 지인과도 함께하려 했으나, 결과는 비슷했다. "웹툰 그리지 말고 공장 가라", "네가 무슨 웹툰 데뷔냐" 등 주변 사람의 의심과 조소도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초기 습작은 인기가 저조했다.

하지만 그는 대학 시절에 얻은 자신감 하나로 고된 시기를 버텼다. 그를 지탱해준 것은 자신감이었다.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자신감 말이다.

"여러가지 일을 당하고 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 습작을 꾸준히 올렸어요. 10화

전후의 짧은 웹툰이나 단편 웹툰을 제작해 독자의 반응을 살폈어요. 마침내 습작을 통해 웹툰 작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됐죠."

확신으로 바뀐 자신감

계속해서 인터넷에 습작을 올리던 중, <선배는 별로예요>라는 작품이 크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5화까지 올렸을 때는, 작품이 여러 커뮤니티에 퍼져 총 조회수가 100만에 다다를 정도였다.

"공모전 도전과 <선배는 별로예요>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공모전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공모전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결국 <선배는 별로예요>를 선택했어요. 작품에 애정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모든 과정이 쉽게 흘러가진 않았다. <선배는 별로예요>를 연재하기 위해 지인의 도움으로 유료 웹툰 사이트인 투믹스의 PD에게 자신의 원고와 기획 초안을 보냈지만, 그 PD가 투믹스에서 퇴사해버리고 만 것이다. 그는 좌절하지 않고 투믹스 사이트 자체에 있는 투고 메일을 통해

작품과 기획 초안을 보냈다. 결국 계약과정을 거쳐 그의 작품은 투믹스의 개편과 함께 업로드됐다.

만화는 점점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19년 12월 26일 업로드된 <선배는 별로예요> 31화는 실시간, 주간, 월간, 신작, 장르 부문에서 모두 1등을 기록했다. 그의 웹툰은 올해 5월 7일 연재를 마치기까지 계속해서 독자의 호평을 받았다.

"1등을 하면서 얻은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는, 저의 능력을 증명했다는 확신이에요. 그것이 저를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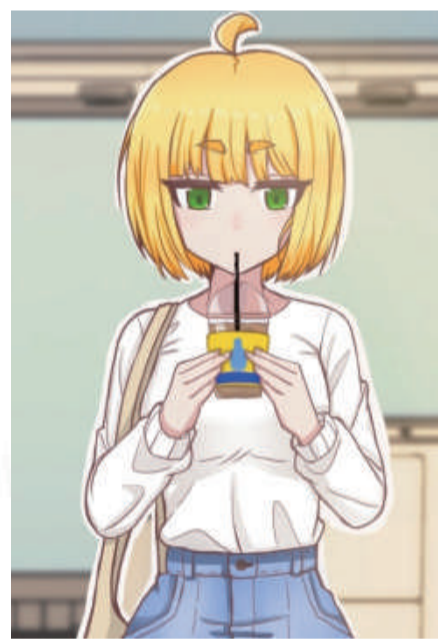
근자감에서 확신까지 웹툰 작가를 처음 꿈꿨을 때부터 투믹스 연재에 도전할 때까지 그에게는 자신감이 있었다. 작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그의 노력을 통해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현재 그의 자신감은 실력에 대한 확신이 됐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그의 기회를 성공으로 만든 것은, 항상 지니고 있었던 자신감이었다.

"꿈이 있다면 그 꿈을 계속 지켜나가기"는 격언은 고리타분하고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좌절과 실패는 언제나 찾아올 수 있어요. 주변 사람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죠. 자신감을 가지고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기회를 잡은 기회'가 한 번쯤은 오는 것 같아요. 좌절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김대건 기자
daegungod@naver.com



▲<선배는 별로예요> 초기 습작(좌)과 정식 연재 이후 그림(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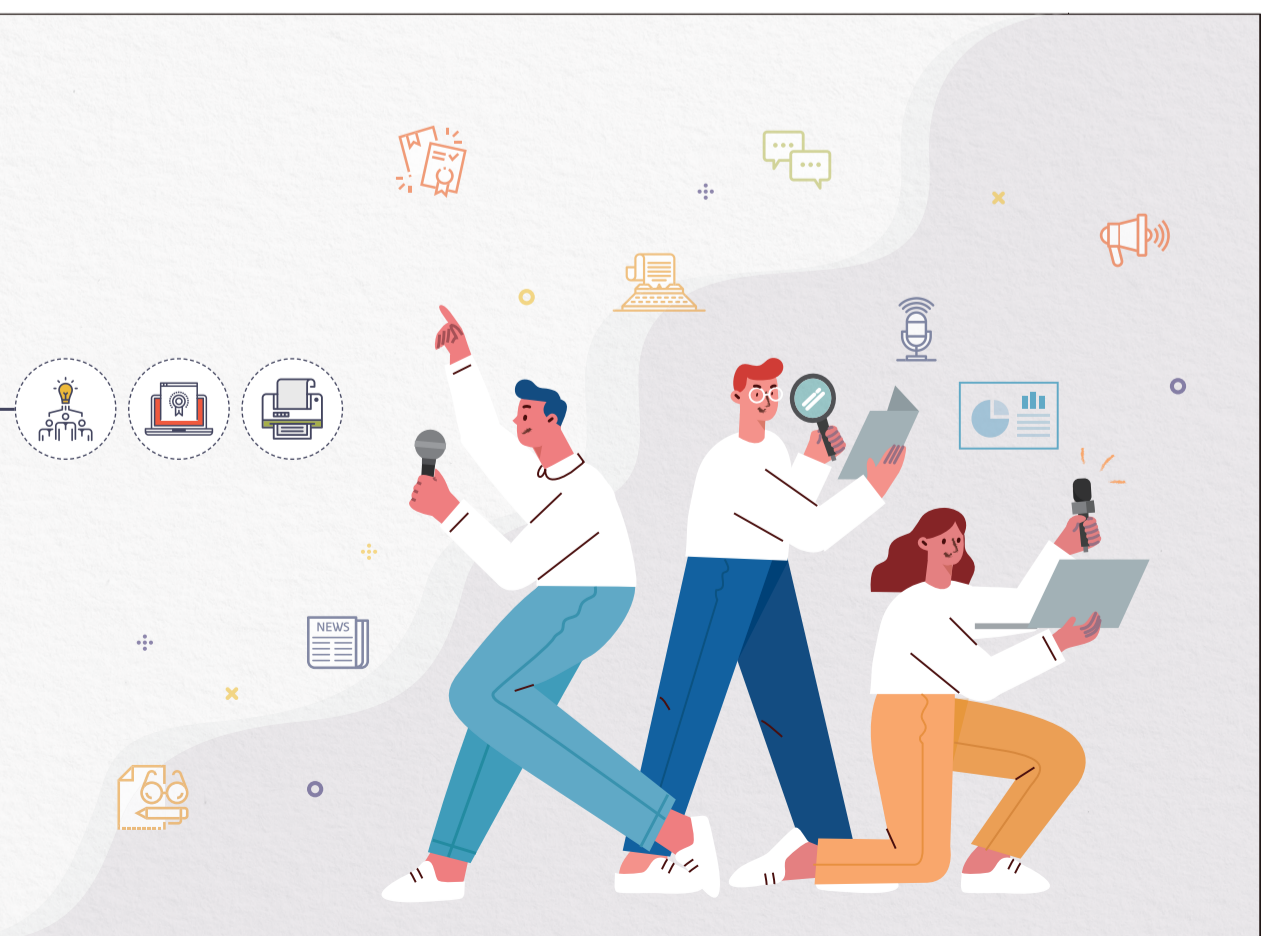


▲강 씨와 부원이 함께 만화동아리 매나니로에서 엮어낸 만화책

제보, 칼럼 모집

<한성대신문>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칼럼을 받고 있습니다.

- 문의
- Tel. 02)760-4186
- E-mail. hansungnews@gmail.com



백색의 마법, MSG에겐 죄가 없다!

마법의 가루, 맛의 근원, 마시짱. 이 세 단어들은 한 가지 물질을 가리킨다. 바로 MSG(Monosodium L-Glutamate), 망한 요리에 한 스푼만 넣으면 맛이 확 살아나는 신비의 물질이다. MSG는 우리의 혀를 만족시키는 감칠맛을 가져다준다. 일부 사람들은 MSG가 몸에 좋지 않다며, 못마땅하게 여긴다. 명백한 오해다. 2014년 식약처에서 'MSG가 무해하다'는 것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MSG에 대한 공포감은 존재한다. 그들이 가진 오해를 풀기 위해, MSG가 무엇인지 낱알이 살펴보고자 한다.

실체가 없는 공포

인류는 감칠맛을 얻기 위해 끝없이 노력했고 MSG를 만들어 냈다. 그런데 어느 순간 MSG는 공포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그 시작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등장했던 중국음식중추군은 MSG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해당 중추군은 로버트 호만 광이라는 의사가 처음 보고했다. 그는 미국 보스턴 근교의 중화요리집에서 식사를 한 뒤, 목과 팔의 저림과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는 중추군의 원인으로 MSG를 지목했지만, 이후 실험에 의하면 그의 주장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다. 대표적으로 동물실험에선 MSG의 독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600마리의 흰 쥐에게 MSG가 들어간 사료를 2년간 먹였지만, 피험체에게 진행된 육안 검사, 혈액 검사, 조직학적 검사 모두 이상이 없다고 판명됐다. 하산도(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는 "다양한 나라에서 MSG와 중국음식중추군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임상시험을 했지만 피험자에게선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중맹검(정확한 결과를 위해 실험자와

피험자에게 특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를 통해 이뤄진 실험에서는 18~24세의 건강한 24명에게 MSG를 투여했지만 피험자에게 중국음식중추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MSG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자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등 많은 나라들이 MSG의 무해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1993년 한 식품회사에서 MSG를 몸에 나쁜 화학조미료라고 마케팅을 펼치면서 잘못된 인식이 퍼졌다. MSG를 넣지 않는 것이 착하고 좋은 식당의 기준이라고 소개한 모 TV 프로그램도 큰 영향을 끼쳤다. 우리는 MSG에 대한 실체 없는 공포에 속고 있던 것이다.

인공 물질? 아니 천연 물질!

사람들은 MSG를 인공 합성물로 오해한다. 인공이라는 말에서부터 몸에 안 좋을 것 같은 뉘앙스가 풍겨진다. 인공 합성물이 무조건 몸에 안 좋다는 것도 편견이지만, MSG는 애초에 인공 합성물이 아니다.

MSG는 글루탐산과 나트륨이 결합한 물질로 1907년 이케다 키쿠네에 교수가 개발했다. 이케다 교수는 단맛, 쓴맛, 신맛, 짠맛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다시마 육수의 맛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5번째 맛인 우마미(감칠맛)를 발견했다. 다시마에 들어있는 글루탐산이 맛의 원천이었다. 그는 글루탐산의 맛을 잘 느낄 수 있도록 나트륨을 붙여 결정화했다. MSG는 단순히 글루탐산에 약간의 소금을 붙인 것일 뿐, 화학적인 변형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심지어 MSG의 원료인 글루탐산은 모든 동식물을 구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15%는 글루탐산

식품 속 유리글루탐산 함유량(mg/100g)

다시마	2,240	파주(조개)	140	대게	19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1,680	녹색 아스파라거스	106	쇠고기	10
김	1,378	푸른 완두콩	106	감자	10
절인 햄	337	양파	51		
에멘탈 치즈	308	시금치	48		
토마토	246	녹차 농축액	32		
체다 치즈	182	닭	22		

자료 출처 : 글루탐산나트륨(Monosodium glutamate:MSG)의 안전성 이슈에 대한 과학적 고찰 (이광원 저)



이다. 우리가 섭취하는 대다수의 식품에는 단백질이 포함돼 있다. 인류는 글루탐산을 끊임없이 섭취해왔다고 볼 수 있다. 글루탐산은 우리가 주로 먹는 식품에 더 많이 함유돼 있다. 밀의 경우 단백질의 40%, 토마토의 경우 단백질의 37%가 글루탐산으로 이뤄져 있다. 육류, 유제품, 콩 가공식품(간장, 된장 등)에도 글루탐산의 함유량이 높다. 오상석(이화여자대학교 식품공학과) 명예교수는 "아기들이 먹는 모유에도 글루탐산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감칠맛을 위한 인류의 노력

글루탐산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해도 우리는 감칠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 글루탐산이 단백질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감칠맛을 얻기 위해선 단백질을 분해해 글루탐산을 유리아미노산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인류는 단백질을 분해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발효다. 발효는 미생물의 효소를 이용해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과정이다. 단백질의 분해를 통해 유리아미노산 비율은 높아진다. 우유의 경우 유리아미노산 상태로 존재하는 글루탐산이 전체의 0.2%밖에 해당되지 않지만, 발효과정을 거친 치즈는 그 비율이 10% 정도로 상승한다. 실제로 우유 100g당 함유된 유리글루탐산(유리아미노산 형태)은 2mg이지만 우유를 발효시켜 만든 치즈 중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일명 파마산 치즈)의 경우 함유량이 1,680mg이다.

콩을 발효한 간장과 된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오 명예교수는 "발효공에 함유된 유리아미노산의 총량은 비발효공에 비해 33~56배 정도 늘어난다. 발효 10일 경에

발효공의 유리아미노산은 2936.2mg으로 비발효공의 521.9mg보다 5.6배 증가한다"고 밝혔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MSG는 소금의 섭취량을 줄일 수 있다. 오 명예교수는 "MSG를 사용해 간을 하면 소금의 사용량을 20~40%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금의 과도한 섭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발효과정이나 장시간 동안 육수를 우려내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것도 MSG의 장점이다.

음식의 맛을 살리면서 동시에 여러 장점을 가진 MSG. 이제는 왜곡된 시선에서 벗어나 밥상의 당당한 일원으로 인정해야 할 때다.

최성훈 기자

csh8947@hanmail.net

최기자의 사담

의(義)를 행한 선비 조현

1591년 한 선비가 도끼를 앞에 둔 채 임금에게 상소를 받아들일 것을 청했다.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도끼로 자신의 머리를 치라는 의미의 지부상소(持斧上疏). 왕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 그는 바로 중봉 조현(1544~1592)이다.

조현은 경기도 김포에서 태어나 1575년 성균관에 입학하면서 당대의 도학(주자학)자로 성장했다. 그는 '올바른 일은 반드시 해야 하고 부당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대하고 저항하라'는 도학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일(義)'이라면 무엇이든 행동으로 옮겼다. 대표적으로 그는 자신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생기면 바로 상소를 올렸다. 조현은 명나라에 다녀온 뒤, 출신을 따지지 않는 인재등용과 공·사·노·비의 양민화를 주장하며 전반적인 사회 개혁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문준(건양대학교 인문융합학부) 교수는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본다.

그리고 평등을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도학"이라며 "조현은 도학자로서 도학의 가르침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조현은 일본의 침략으로 전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 판단하고, 전시준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소를 여러 차례 올리기도 했다. 그가 올린 상소에는 일본군이 어디로 쳐들어올지, 어느 지역을 방어해야 할지, 각 지역의 방어에는 어느 인물이 적합할지 등 구체적인 분석이 담겨있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목숨을 건 지부상소를 행했다.

그러나 조현의 상소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낙향한 조현은 굴하지 않고 당시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취했다. 먼저 사람을 모아 전쟁준비를 진행했고, 그 결과 임진왜란 전부터 의병을 일으킬 준비를 마쳤다. 임진왜란의 발발 이후 조현과 그의 의병은 충청도 공략의 중심인 청주성을 수복하는 전공을 올렸다. 이후에도 그들은 전라도 금산(현재 충청북도 금산)에서 일본군과 수차례의 전투를 벌이게 된다. 그와 그의 의병은 세 차례에 걸친 일본군의 공격을 고군분투해 막아냈으나, 결국 수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모두 전사했다.

조현은 당대의 도학자로서 도학의 가르침을 성실히 수행하며, 자신의 안위와는 상관없이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행했다. 김 교수는 조현에 대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그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기억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행동하는 선비'라는 그의 위명은 앞으로도 영원히 남을 것이다.

최성훈 기자

csh8947@hanmail.net

신비한 스포츠 사전

꿈의 점프, 쿼드러플 악셀을 향하여

넓은 얼음판 위, 아름답게 주회하던 선수가 높은 점프와 함께 회전한다. 완벽한 점프를 끝내고 착지하자 관객들 사이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진다. 난이도가 높고 회전수가 많은 점프일수록 고득점을 쟁취할 수 있는, 피겨스케이팅이다.

우리는 피겨스케이팅하면 흔히 '트리플 악셀'을 떠올린다. 여기서 악셀은 앞으로 뛰고 뒤로 착지해 다른 점프 기술보다 반 바퀴를 더 도는 기술이다. 트리플 악셀은 여자 선수 중 성공한 선수가 11명뿐인 정도로 어렵기로 유명하다. 그런데 현존하는 악셀 중 가장 어려운 것은 트리플 악셀이 아닌 '쿼드러플 악셀'이다. 쿼드러플 악셀은 총 4.5바퀴를 도는 점프 기술이다. 쿼드러플 악셀을 실전에서 도전한 선수는 지금까지 단 한 명이었으나 그것마저 실패했다. 기술의 성공을 위해 선수는 어떤 과학 원리를 알아야 할까.

점프에 앞서 선수는 멀리서부터 빠른 속도로 달려온다. 속도를 높여 '각운동량'의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함이다. 물체의 질량과 회전 반지름, 선속도의 곱인 각운동량은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량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각운동량이 클수록 선수는 공중에서 많은 회전을 할 수 있다.

달려온 선수는 회전 반지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점프 직전 양팔을 뻗는다. 이때 선수의 몸을 회전축이라고 생각하면 팔은 회전 반지름을 담당한다. 양팔을 멀리 뻗을수록 회전 반지름이 늘어나며, 동시에 각운동량이 커진다. 이때 커진 각운동량은 한 운동 내내 유지된다. 이를

'각운동량 보존법칙'이라 한다.

선수는 공중에 올라 회전하기 위해 양팔을 가슴 쪽으로 오므려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든다. 회전 반지름을 다시 줄이는 행동이다. 각운동량이 보존되면서 회전 반지름이나 선속도의 변화에 따라 선수의 회전에는 큰 변화가 생긴다. 운동하는 순간 선수의 질량이 변할 리 없으니 이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공중에서 양팔을 오므려 회전 반지름을 줄인 선수의 선속도는 자연히 늘어난다. 늘어난 선속도 덕분에 선수는 공중에서 많은 회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중에서 회전을 마친 선수는 착지하며 팔과 다리를 크게 뻗는다. 팔을 뻗으며 회전 반지름이 늘어난다면 선속도는 줄어들게 된다. 안정적인 착지를 위해 선속도를 줄이는 것은 필수적인 행동이다. 만약 선수가 회전 반지름을 높이지 않은 채로 빙판에 착지한다면 계속 회전하려는 성질과 높은 속도로 인해 어렵고 위험한 착지가 될 것이다.

고정된 장소에서 계속 회전하는 기술인 '스핀'에서도 각운동량 보존법칙이 적용된다. 선수는 스핀 직전 팔과 다리를 크게 뻗고 순간적으로 힘을 가한다. 팔과 다리를 뻗어 회전 반지름을 크게 하고, 힘을 가해 선속도를 크게 하는 것 모두 각운동량을 크게 하기 위한 행동이다. 스핀의 처음 회전속도는 느리지만, 선수가 팔과 다리를 안으로 굽히면 회전속도는 놀랍도록 증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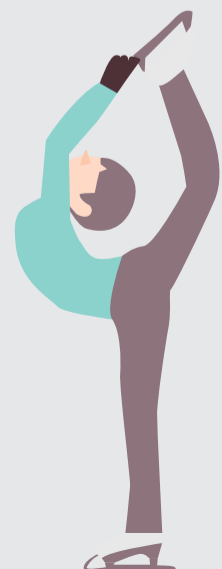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공중에 있는 시

간은 단 1초도 되지 않는다. 4회전 점프가 가능한 선수들의 체공시간은 보통 0.7초 내외다. 쿼드러플 악셀을 성공하기 위해선 0.7초 내외로 4.5회전을 해야 한다. 과연 그 짧은 시간에 자세를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꿈의 점프를 완성할 수 있는 선수는 누구일까. 김찬주(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는 "피겨스케이팅은 얼음판 위에서 매 순간마다 자세를 변화시키며 각각의 상황과 조화를 이루어 낸다. 궁극적으로는 예술을 표현하는 스포츠"라고 말했다.

*선속도 : 일차원 운동에서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주진솔 기자

twoxo@naver.com



· 삼 학 송 ·

28개월의 고민

처음 편집국장에 취임했을 때가 떠오른다. 적은 인력으로 읽기 좋은 학보를 어떻게 만들지, 학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삼학송은 늘 쉽게 쓰이지 않았다. '좋은 리더란 무엇인가'의 답변 찾기는 꿈속에서도 진행됐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편집국장'이라는 자리가 안겨준 문제는 필자 본인의 유능함과 강한 책임감으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었다.

필자의 28개월 여정 구석구석에는 질문의 해답을 함께 찾아간 전우가 있었다. '리더'에게 필연적으로 생기는 외로움 속에서 그들은 늘 친구가 돼주었다. 필자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기도, 의지할 어깨를 내어주기도 했다. 때때로 미운 청개구리로 변신했지만 결국엔 미워할 수 없는, 좋은 선생님이었다. 그들이 본인 기사의 가치를 발견하고, 필자가 그랬던 것처럼 기사를 통해 '살아있음'을 느낄 때, 그만큼 행복한 일도 없었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모두의 열정, 체력, 눈물을 담보로 한 채 학보를 만들었고, 성장했다.

마지막 마감을 며칠 앞두고 그간 발행했던 신문을 찬찬히 살펴봤다. 모든 순간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직접 레이아웃을 그리고, 매수를 계산하고, 디자인을 했던 신문들을 보니 '학보사 기자'가 참 행복한 이름이구나 싶었다. 원하는 주제로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다는 학보의 특징 덕분에 필자에게 취재하고 싶은 아이템이 많았다. 지면의 한계로 기사에 차마 담고 싶은 말을 못 말할 때는 모든 공백을 활용해서라도 말하고 싶었다. 그 욕구를 거기에 허락해준 <한성대신문>에 감사하다.

장선아 편집국장

학생의 신분으로 학보를 꾸준히 발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과제를 뒤로 하고 키보드를 두드릴 때, 사색을 거절하고 신문사로 발걸음을 재촉할 때 혹여나 스스로를 잃은 것은 아닐까, 고민한다. 농친 뉴스를 발견할 때, 눈물로 만든 기사가 효력을 다하지 못할 때는 무력감을 느낀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취재원에게 무시를 당할 때면 억울해서 밤잠을 못 이루기도 한다. 본인이 과연 학생인가 기자인가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당장 코앞에 있는 발행에 최선을 다한다.

설상가상으로 활자보다 영상이 더 편한 독자에게 학보가 빛을 발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밤낮 구분 없이 학보 발행에 매진해도 학보를 읽는 사람보다 읽지 않는 사람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으니, 학보사 기자는 열정페이에 비유되곤 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무슨 소득이 있냐"는 말은 학보사 기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질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자로서의 사명감으로 어떠한 난관에도 굴복하지 않고 씩씩 달려왔다. 곁에 있는 전우와 함께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마땅히 보도할 것을 보도하기 위해 학보를 만들었다.

28개월 동안 필자가 했던 고민을 후배에게 물려줄 때가 왔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언제나 찾아오며, 본인을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질문에 타협하고 쉬운 길을 가지 않길 바란다. 용기 있게 난관을 직면하고, 굴복하지 않길 바란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전우가 있음을 항상 상기한다면, 언젠가 질문에 답하는 기자가 돼있을 것이다.



욕심에 가로 막힌 첫 삼

지난 7일 장위동에는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사랑제일교회(이하 교회)의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를 전 새벽, 교회에선 강제철거를 시도하는 조합과 철거를 막으려는 교인 간의 충돌이 일어났다. 장위동의 재개발 사업은 2006년에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철거를 목전에 뒀지만, 재개발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 교회가 신도의 이탈 가능성을 이유로 서울시의 토지 감정가인 82억보다 약 7배 많은 560억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었지만 신도들은 스스로 인간 방패가 돼 조합의 철거 시도를 무산시켰다. 재개발은 무사히 진행될 수 있을까? 과도한 교회의 욕심이 첫 삼을 가로막고 있다.

최성훈 기자

■ 의화정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등록해 보호받는 중요한 권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디자인권에 대한 방어는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디자인보호시스템 역시 대자본 위주로 짜여 있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다.

일단 출원 시스템 자체가 난이도와 비용 때문에 개인에게 유리하지 않다. 디자인권은 제품의 최종 출시 전 특허청에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리인을 통하면 영세한 디자이너가 감당하기 힘들다. 소기업에서 100개의 디자인 상품을 출시할 때 모두 대리인을 통한 디자인 특허출원 및 등록을 한다면 감당하기 힘든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 게다가 곳곳에 함정특허와 회피특허라는 사냥꾼과 도둑이 디자이너를 갈취하기 위해 도사리고 있다.

디자인권이 침해됐을 때 항변할 통로도 마땅치 않다. 개인이나 소기업이 고생해서

디자인권 특허등록의 중요성

디자인 결과물을 출시해도 그대로 데드카피 돼 덩핑으로 찍통이 쏟아진다. 대박 상품이 하나 출시되면 일주일 이내에 카피된 상품이 반값으로 시중에 깔린다. 상대방을 찾아가도 거꾸로 당당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법정투쟁은 막대한 고지지만 남긴다.

특허등록된 디자인권은 상품화가 목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방어가 목적인 '방어 특허'다. 문제는 비용이다. 다행히 우리대학에서는 디자인 특허 인프라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다. 3년간 대리인을 통해 개인출원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5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2~4만 원까지 낮출 수 있다.

우리대학은 지식산업선도대학으로 지정돼 디자이너가 스스로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명세서와 도면 작성 및 전자출원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규 교과목과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저작권과 프로그램 등록도 가능하다. 기본적인 평면디자인(디자인일부심사)과 입체물, 제품디자인, 의료, 그래픽디자인 전반은 물론 GUI디자인(공대, 디자인대)과 스마트폰화상디자인까지 등록하고 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우리학교 학생들의 출원 건수는 1,000여 건 이상이다. 모든 물품에 대한 출원 경험이 있고 특허등록을 받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킨 경우도 수백여 건이다.

자신의 디자인 결과물은 스스로 보호하는 수밖에 없다. 디자인은 카피하거나 변형하기 쉽고, 창작의 원리상 우발적으로 유사한 기존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도 높다. 디자이너를 목표로 한다면 디자인권에 관심을 갖고 주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자신의 디자인을 지켜야 할 것이다.

안광준(ICT디자인학부) 교수

■ 기자수첩

흔히들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한다. 자신의 불리한 기억이나 안 좋은 기억 등을 잊고 없었던 일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픔을 망각으로 치유하기도 하지만, 잊어진 안 될 일을 망각해서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 기자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잊어버려선 안 될 중요한 일을 밤 먹듯 종종 잊곤 했다. 모두가 알아주는 달링이었다. 그런 기자가 한성대신문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달링거리는 네가 기자를 할 수 있겠어?"

기자 역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망각으로 진실이 가려지는 일이 생길까봐 두렵기도 했다.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하고 끊임없이 확인했다. 학내 보이지 않는

곳의 이야기까지 듣고자 노력했다. 기자 생활 동안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더 나아질 것을, 때로는 잘못을 뉘우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학기 <한성대신문>에는 유독 많은 '약속'이 기록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계속되는 불확실한 상황이 주된 이유였다. 개교 이래 처음으로 전면 온라인강의가 시행됐고 온라인 중간고사도 진행됐다. 몇 차례 간담회도 진행하면서 학교는 학생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듯 보였다. 기사에는 "개선할 것"이라는 표현이 가득했다.

종강을 앞둔 지금, 이들은 약속을 잊고 않고 지켰을까? 기자가 진행한 '대학본부

코로나19 대처 만족도 조사'의 결과는 그들이 말하는 노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설문조사 응답자 246명 중 과반이 넘는 198명이 불만족 혹은 매우 불만족에 답했다. 이들은 대부분 개선되지 않은 불만사항과 소통의 부재를 불만의 원인으로 꼽았다.

학교가 약속을 지키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남아있다. 등록금 환불, 온라인강의 질 개선 등은 이번 학기가 끝난다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약속을 지키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사는 잊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이들의 약속과 당시의 목소리를 기억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록할 것이다.

박희연 기자

잊지 않겠다는 약속

■ 낙산에 올라

요즘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한 뉴스를 보면, 매달 후원하는 비영리단체와의 정기후원을 끊을까 자주 생각하게 된다. 위안부 할머니의 권리를 되찾는 명분으로 거둬들인 수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보도됐기 때문이다.

사실 비영리단체가 기부금을 온전히 쓰지 않는 행태는 언론에 한두 번 보도된 게 아니다. 당장 '기부금 횡령'을 검색하면 '유니세프', '사랑의 열매'같은 기부단체의 이름이 등장한다. 뉴스를 접하면서 분노를 느끼는 것은 물론, 선한 마음이 기만당한 느낌이 들어 좋은 일을 하고도 우울한 기분을 느낀다. 기부금이 다른 곳에 사용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두고 기부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갈 곳 잃은 후원자들

비영리단체에 대한 후원금을 의도와 다르게 사용했다는 뉴스가 보도될 때마다, 기부부를 꺼리는 심리가 증폭되면서 기부포비아는 확대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사람들의 기부율은 4.3% 감소했다. 정의기억연대 사건처럼 비영리단체 내 비리가 지속된다면 기부단체를 불신하는 풍조도 더 확산될 것이다. 최근 정의기억연대와 마찬가지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던 '나눔의 집'의 후원자들은 자신의 후원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호명식 요양원을 짓는 데 쓰였으며 집단 후원금 반환소송까지 제기했다.

후원금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비영리단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후원자가

기부한 단체의 기부금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후원금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비영리단체가 받는 기부금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돼야 한다.

기부문화에 침투한 비리로 선의를 가진 후원자가 갈 곳을 잃고 있다. 이대로 후원자가 없어진다면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단체의 활동도 멈추게 되고, 온정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을 것이다. 기부포비아의 확산을 멈추고 올바른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후원자의 선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하루빨리 보여줘야 한다.

김도형(사회과학 3)

낙산만평

안현경 기자



기자사령

퇴 수습기자 이민경(상상력 1)

<한성대신문>은 교수님의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면에 실을 동정이 있으면 한성대신문사(내선 4186)로 문의바랍니다.

새내기의 1학기 탐구생활

<편집자주>

새내기, 이름만 들어도 풋풋하고 설레는 이름이다. 기나긴 학창시절에 종지부를 찍고, 대학 합격증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는가? CC가 되어 캠퍼스를 거닐거나, 술을 진탕 마시고 동기들과 어깨를 부여잡으며 도원결의를 맺을 줄 알았다. 하지만 20학번 새내기 앞에 펼쳐진 것은 다름 아닌 바이러스, 입학과 동시에 부푼 대학생활의 '로망'은 '좌절'로 바뀌었다. 이들 대부분은 단 한 번도 동기를 만나보지도, 학교에 와보지도 못했다. 과연 20학번 새내기들은 이번 학기를 어떻게 보냈을까? 그들이 궁금해 하는 학교 생활은 과연 무엇일까?

각자의 매력을 품은 새내기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톡톡 튀는 개성을 가진 그들은 각자 나름대로 '집콕'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귀여운 새내기의 라이프 스토리부터 형형색색 개성 넘치는 질문까지, 지금부터 새내기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안현경 기자 dksgrud24@naver.com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20학번 새내기, '나는 이렇게 보냈다!'



아침에 눈을 떠 책상 위에 앉아 온라인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반쯤 감긴 눈을 비비고 정신을 차려보니 기초적인 영어 단어를 헛갈려 하는 내 모습을 보았다. 순간, 입학 전 공부를 게을리 한 지난날이 주마등 처럼 스쳐 지나갔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발전이 없을 것 같았다. 그래, 너로 정했다! 이번 1학기 목표는 영어 공부다. 지루한 건 세상에서 제일 싫다. 어떻게 해야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번역 '미드'가 떠올랐다!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해 한글 자막 없이 시청하면 어떨까 생각했다. 그렇게 선택한 '김고어 걸스'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쉬고 싶을 땐 언제든지 자유롭게 취미생활을 즐겼다. 이번 학기에는 집에서 주구장창 독서를 했다. 평소 나는,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었다. 독서를 통해 압박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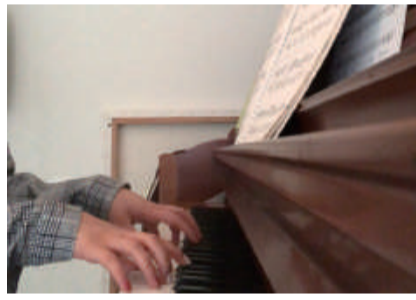
사는 방법을 20년 만에 알게 됐다. 독서가 지루할 땐, 피아노 연주로 적적한 마음을 달랠 뻔했다. 이번 학기에는 가장 좋아하는 곡인 'Princess Of Flower'에 도전했다. 수많은 연습 끝에 나는 이 곡을 완주했고,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은 오늘도 내 방을 가득 채웠다. 다음은 어떤 곡을 연주할지 고민이다. 이 곡만큼 내 마음을 먹먹히 울리는 곡을 만났으면 좋겠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디즈니 인턴십'에 반드시 도전할 계획이다. 입학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졌던 프로그램이다. 또한 동기들과 함께 학생식당에서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학교 내부모도 구경하고 싶고, 시험기간에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도 해보고 싶다. 학교에 나가 그 꿈을 이룰 내 모습이 벌써부터 그려진다.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20학번 최가은]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려준 책



▲'Princess Of Flower' 곡을 연주하는 모습



▲온라인강의 시청 중 찍는 모습



▲코로나19 확산 이전, 친구들과 축구하는 모습

나는 오늘도 흰 배경에 검정 글씨가 쓰인 PPT를 바라만 보고 있다. 수업 중간 계속 'Pause' 버튼을 누른다. 온라인강의를 4개월 동안 들었으나, 영상에 집중하기 힘든 것은 학기 초나 지금이나 다름없다. 눈 깜짝할 새, 시험기간이 다가왔다. 강의를 시청한 후 배운 내용을 바로 복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복습에 돌입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복습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다가오는 시험이 '불안'에서 '기대'로 바뀌었다.

밖에 자주 나가지 못해 온몸이 근질거린다. 운동을 통해 경직된 몸을 풀고 싶었다. 간절히 마음으로 우리학교 축구 동아리 '버팔로'에 가입을 신청했다. 코로나19로 활동이 취소될까 걱정이 됐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코로나19의 여파로 동아리 활동이

취소됐다. 좋아했던 종목의 동아리였기에 아쉬움도 컸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2학기에는 걱정 없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다.

선부르지만 벌써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의 내 모습을 상상했다. 활동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 가장 먼저 동기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모습을 상상했다. 장소는 '가평'이다. 학교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해 있고 구경할 곳도 많아, 동기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 생각한다.

한성대학교에서 나를 한층 더 성장시키고 동기, 선배 그리고 교수님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코로나19는 나의 활발함을 결코 막을 수 없다.

[IT공과대학 20학번 임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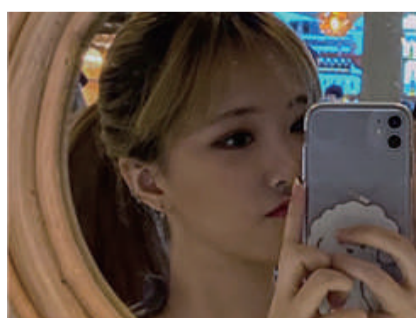
불규칙한 생활을 한 지 어느덧 4개월 차. 개강 이래로 온라인강의는 매일 밀렸고, 이리려고 대학에 왔다. 자괴감에 빠진 지도 오래다. 절로 플래너의 필요성을 절감해, 얼마 전부터 플래너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월요일은 코딩, 화요일은 사고와 표현, 수요일은 영어커뮤니케이션...' 플래너는 각종 계획들로 가득 찼지만, 역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꾸준히 계획을 실천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플래너의 계획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버려지지 인생은 왜인지 무료한 삶에 스킬을 더해줬다.

일주일 중 하루는 쉬는 날이다. 난생 처음 넷플릭스를 결제해,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정주행했다. 이 드라마는 대박이다.

내용뿐 아니라 OST가 너무 좋아서 매일 찾아 듣는다. 그중에서도 조정석이 부른 '아로하'가 제일이다. '어두운 불빛아래 좇불 하나' 첫 소절만 들어도 드라마의 장면이 그려진다. 유튜브는 이번 학기 나의 베스트프렌드다. 다이어트를 위해 매일 '핑크부부'와 'April Han Fit&Fashion'의 홈트레이닝 영상을 시청했다.

이번 학기는 학교를 안 다녀서 나만의 시간이 많아 좋았다. 그런데 한 가지 슬픈 사실은 아직도 학교에 아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거다. 빨리 마음 맞는 친구를 사귀어 보고 싶다. 또 다음 학기에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이번 학기보다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

[상상력인재학부 20학번 박승연]



▲거울 앞에서 찍는 내 모습



▲1학기 동안 작성한 플래너

< 새내기가 묻고 기자가 답하는 Q&A 시간! >



상상력인재학부 20학번 김주호

저는 아직 한 번도 학교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한성대학교는 어떻게 생겼나요? 가장 특징적인 만한 건물이 있을까요?

한성대신문사

한성대신문사

한성대학교는 위에서 내려다보면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T자' 형태로 생겼습니다. 정문 바로 옆에는 한성여중-고가 있으며, 본교 건물 중 대표적으로 소개할 만한 건물은 수업 듣는 장소인 '상상관', 교수님이 계신 '연구관', 학술정보관과 열람실이 있는 '미래관'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대 건물인 '공학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작년 2월에 개관한 기숙사, '상상빌리지'가 있어요. '탐구관', '진리관', '창의관'도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건물입니다.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20학번 최가은

학교에서 사진 찍기 예쁜 곳이 있을까요? 평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데 친구들과 사진 찍기 좋은 장소나 공강 시간 동안 산책하기 좋은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성대신문사

한성대신문사

멋진 전망을 찍고 싶으시다면 상상관 12층을 추천합니다. 연구관 옥상도 잔디, 나무, 벤치의 조합이 정원을 연상케 합니다. 삼삼오오 모여 수다 떨기 좋은 곳이에요. 교내 산책하기 좋은 장소로는 낙산공원 가는 길이 있습니다. 푸른 나무와 앉아서 쉴 공간이 마련돼 있거든요. 상상마당에도 산책하며 벤치에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운동장만큼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친구와 간식을 먹으며 소소한 얘기를 나누기에 좋아요.



상상력인재학부 20학번 박승연

한성대학교 학생식당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있는데, 인기 메뉴는 무엇인가요?

한성대신문사

한성대신문사

학생식당의 효자메뉴로는 '소금구이덮밥', '우삼겹된장찌개', '새우튀김알밥' 등이 있습니다. 먼저 소금구이덮밥은 3,5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달콤한 고추장 소스에 양파와 고기가 어우러진 메뉴예요. 우삼겹된장찌개는 찌개류 중 가장 인기 있는 메뉴인데, 칼칼한 국물과 푸짐한 고기의 양으로 학우들 사이에 해장하기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우튀김알밥은 예쁜 그릇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물론, 단짠단짠의 조화로 여심을 저격하는 메뉴입니다. 한 입 크기의 새우튀김과 달콤한 마요네즈 소스, 짭짤의 김 가루, 그리고 싱싱한 채소가 어우러져 황홀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상력인재학부 20학번 강שה

아간으로 들어와서 한성대학교 야간 생활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야간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가요?

한성대신문사

한성대신문사

야간의 장점은 낮 시간이 확보 된다는 점입니다. 낮에 학원을 갔다가 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 수업 전 공강이 생기면 충분하지 못했던 수면을 채우는 시간이 될 수 있죠. 단점으로는 동아리나 단과대학 행사가 대부분 주간 수업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수업을 듣느라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주간이든 야간이든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듀얼! 그때 그 시절, 추억의 놀이



▲놀이터에는 화려한 요요 기술을 뽐내는 친구가 있었다.



▲또래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놀이는 '유희왕' 카드게임이었다.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이 동네 놀이터로 삼삼오오 모인다. 놀이터는 모니터 속 세상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장소다. 정자 위에서는 고무로 된 딱지를 서로 뽐내며 딱지치기를 하는가 하면, '블레이징 틴스'라는 애니메이션이 불러온 요요 열풍으로 인해 화려한 요요 기술을 뽐내는 친구도 있다. 인기가 가장 많은 것은 단연 '유희왕' 카드게임이다. 놀이터 내 벤치는 듀얼 배틀장이 되곤 한다. "응합! 나와라, 사이버 오파 유의, 사이버 엔드 드래곤!" 원작 애니 속 주인공의 대사를 읊으며 게임을 하는 친구들로 놀이터는 항상 시끌벅적하다. 종종 카드 효과를 가지고 논쟁을 하거나, 구하기 힘든 카드를 도둑맞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 부모님께 야단맞은 후 눈물을 머금고 딱지나 카드를 버렸던 것은 아직도 웃지 못할 기억이다. 딱지를 치는 것보다 키보드를 치는 것이 더 익숙한 지금, 친구와 얼굴을 맞대고 했던 그 시절 우리의 놀이는 짙은 향수로 남아있다.

김선우 기자 rdjrlf1@naver.com

<편집자주>

당신은 어떤 라떼를 좋아하는가? 혹자는 부드러운 우유와 에스프레소 샷이 들어간 카페라떼를, 또 다른 누군가는 우유와 씩씩한 녹차가 들어간 녹차라떼를 말할 것이다. 우리의 라떼는 조금 특별하다. 우유 대신, 그 시절 그 감성이 담겨있는 '라떼는 말이야'이다. 조금은 초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컴퓨터를 켜면 제일 먼저 '지존김카'가 남긴 일촌명을 확인했고, TV를 틀면 자연스럽게 38번부터 눌렀다. 집 어딘가에 잠들어있는 딱지와 힐리스는 그 시절 보내는 아이템이었다. 당신도 기억하는가? 그 시절 그 감성이 담긴, 우리의 '라떼'.

맛있다해. 한 그릇 더 만들어 달라해

돼지고기, 두부, 양파, 양배추, 참기름, 마늘, 대파, 물, 밀가루 순으로 넣는다. 반달모양 만두는 굵고, 또아리모양 만두는 찌고, 주그리모양 만두는 삶는다. 이것만 기억하면 기가 막힌 만두를 만들 수 있다. 중국음식도 식은 죽 먹기다. 음식의 재료를 알맞은 순서로 넣고, 타이밍에 맞춰 꺼낸다. 먹음직스런 짜장, 잡뽕, 탕수육에 주방장은 '따봉'을 날린다. VJ특공대 맛집 짬뽕 정도로 완벽한 음식이 완성됐다. 고향만두와 중국음식을 정복했지만 끝판왕은 아직 남아있다. 슈의 라면가게를 정복해야만 진정한 장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 쉬운 음식의 대명사 라면이지만 플래시게임에선 알잡아 볼 수 없는 상대다. 후속 줄어드는 시간, 정신을 놓으면 냄비가 타버린다. 설거지 엔딩을 보지 않으려면 나의 집중력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렇게 수익금 만 원을 모으면 라면이 나고, 내가 라면인 물아일체의 경지에



▲플래시게임 '평화와 주방장 1'의 플레이 화면이다.

오르게 된다. 그러나 화려한 나의 요리 실력은 이제 보여줄 수 없다. 추억 속 그곳들이 이젠 없어졌기 때문이다. 기억 속에 남은 모습이지만 그때를 추억하면 왠지 미소가 지어진다.

최성훈 기자 csh8947@hammail.net

"시켜줘. 한성대 명예 추억팔이"

"시켜줘, 금잔디 명예 소방관" 지후 선배의 주옥같은 대사가 나온다. "대사 미쳤다" 입에서 절로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흥분으로 떨리는 주먹을 소파에 내리치느라 바쁘다. 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 학원에서 집까지 얼마나 달렸던가. 한 장면이라도 놓치면 다음 날 친구들의 대화에 끼일 수 없을 것이다. 점 하나 찍었을 뿐인데 새로운 사람이 된 민소희의 복수극부터, 소리쟁이 머리에 화려한 왕자 의상을 입은 구준표가 보여주는 로맨스까지... 폭포처럼 쏟아지는 드라마들 중 무엇을 본방사수 해야 할까.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고난이다. 드라마가 끝나면 은밀한 독서 생활이 시작된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기 위해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을 쪼갬다. 어둠 속에 유유히 빛나는 PMP에는 텍스트 파일이 가득 차있다. 드라마와는 차원이 다른, 온갖 향신료와 매운 맛

이 가미된 인터넷 소설 파일이다. 불치병에 걸린 주인공의 절절한 짝사랑, 전 세계 서열 1위와 평범한 학생이 보여주는 달달한 로맨스... 인터넷 소설은 빠져나올 수 없는 '늘'과 같다. 지금 보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대사와 내용이었지만, 우리는 그 감성에 미쳐있었다. 남몰래 그 시절 드라마와 인터넷 소설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오늘밤 다시 정주행 해보는 것은 어떨까.

박희연 기자 heeyun96@naver.com



▲꽃보다 남자 포스터. 구준표의 소리쟁이 머리가 눈에 띈다.

내 이름은 만화. 추억 그 자체

하교와 동시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집으로 달려가 가방은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TV를 켜다. 내 종이 남자친구, 천재 명탐정 코난이 등장해 살인사건을 추리해 나간다. 코난의 추리 이야기가 끝나면 체리가 등장해 주문과 함께 요술봉을 돌려 변신한다. "TV 그만 보고 숙제해!" 엄마의 잔소리가 귓속을 파고든다. 해가 지도록 TV에 빠져들어 엄마에게 등짝을 맞는 건 당연한 일상이다. 교실에서는 이누야사의 팬덤과 셋쇼마루의 팬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외모, 성격 전부 정반대인 둘 중 과연 누가 진정한 주인공인지, 누가 더 잘생겼는지를 두고 다투는 거다.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그 시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만화는 지금도 따뜻했던 그때 감정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 그때의 만화들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는 이유다.

주진솔 기자 twoxo@naver.com



▲'명탐정 코난'의 만화책 7권 표지와 '이누야사' OST 앨범 커버 사진이다.

패셔니스타 90년대 생의 '워너비' 아이템



▲양쪽 발뒤꿈치에 바퀴가 달린 것이 특징인 '힐리스'.



▲감정에 따라 색이 변하는 '진실반지'.

토요일 오후 4시. TV를 틀자 신인가수 세븐이 '와쥬'를 부르며 춤을 춘다. 미끄러지듯 빠르게 무대 위를 이동한다. 그가 신은 신발은 바퀴 달린 신발, '힐리스'다. 몇 날 며칠 부모님에게 졸라 얻어낸 힐리스는 나의 워너비 아이템에서 '보물 1호'가 됐다. 새로 산 힐리스를 자랑하기 위해 등굣길마다 신고 다닌다. 마치 내가 세븐이 된 것 같다. 하룻길엔 힐리스를 신은 채 친구와 함께 문방구로 달려간다. 친구 하나, 나 하나. 똑같은 모양의 반지를 사 손가락에 끼운다. 우리가 산 반지의 이름은 '진실반지'. '매직반지'라고도 불리는 이 반지는 감정에 따라 형형색색의 자태를 뽐낸다. 보라색은 행복한, 연두색은 평온함, 초록색은 만족감... 오늘이 용돈 받는 날인 걸 알았는지 내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는 행복함을 나타낸다. 당시 학생들 사이에 '봄'을 일으킨 최고의 아이템, 힐리스와 진실반지. 이제는 우리에게 추억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안현경 기자 dksqsrud24@naver.com

'추억' 퍼가요~♡

모두가 잠든 새벽, 모니터를 켜고 '싸이월드'에 접속한다. 미니홈피를 열자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온다. 프리스타일의 Y. 오늘따라 음악이 우울한 마음을 대변한다.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새벽 감수성에 젖어 글을 작성한다. 이 순간만큼은 어느 시인 부럽지 않다. 친구에게 일촌 맺기를 보낸다. 일촌명은 '♣소울마히뚜♣'. 파도타기로 친구의 미니홈피에 들어가 일촌평을 남긴다. '내 소울메이트 찜찜!' 나의 소울메이트 목록에 한 명이 더 추가됐다. 미니홈피의 꽃은 단연 '미니룸'이다. 거기에 도토리까지 있다. 미니룸을 꾸미고, 기분에 따라 나의 아바타인 '미니미'의 표정과 행동을 바꾼다. 좋아하는 연예인을 본뜬 미니미를 사서 무대처럼 꾸미기도 한다. 화면 속 작은 세계는 나의 취향들로 가득 채워진다. 그 세계는 나만의 세상이었거니와, 누구에게도 없는 특별한 것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싸이월드는 우리의 기억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도토리를 사느라 부모님께 야단맞던 것도 가물가물하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지금의 SNS와는 다른, 싸이월드 특유의 여유와 소소함이 그리워진다.

이슬비 기자 selbee01@gmail.com



▲미니홈피의 '미니룸'을 꾸민 모습.